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
17
년 8
월
석사학위 논문

2017년 8월
석사학위 논문

우울증적 주체와 백낙청의 리얼리즘론

우울증적 주체와 백낙청의 리얼리즘론

성 김
민
명 교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민교

우울증적 주체와 백낙청의 리얼리즘론

A Study on Melancholic Subject and Baek Nakchung's Realism

2017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민교

우울증적 주체와 백낙청의 리얼리즘론

지도교수 김 형 중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국 문 학 과

김 민 교

김민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오문석</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차승기</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형중</u> (인)

2017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대상 및 문제제기	2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6
제 2 장 ‘리얼리즘론’의 정치적 무의식	12
제 1 절 백낙청의 정치적 무의식	12
제 2 절 ‘리얼리즘론’과 상징투쟁	17
제 3 절 삶의 이데올로기	21
제 3 장 ‘리얼리즘론’과 우울증적 주체	30
제 1 절 ‘진정한 것’을 향한 열망	30
1. 세기의 열정	30
2. 진정성의 시대	32
3. 모더니티의 구원	35
제 2 절 우울증적 주체의 열망	37
1. 우울증적 주체의 야망	37
2. ‘리얼리즘론’의 왜상적 대상	39

3. ‘리얼리즘론’의 방법론	43
4. ‘진정한 것’의 허무주의를 넘어서	46
제 4 장 결 론	52
참고문헌	54

ABSTRACT

A Study on Melancholic Subject and Baek Nakchung's Realism

Kim Min Gyo

Advisor : Prof. Kim Hyoung Joong, Ph.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critically reconsider Baek Nakchung's Realism of the 70s and 80s. Especially focusing on the dualist worldview in Baek Nakchung's Realism, I've tried to reveal his homogeneous modernity. Baek Nakchung tried to overcome modernity, which has limited his whole theory and practice. But Baek Nakchung's Realism shows the homogeneous modernity of the archetypal modern subject on a philosophical, social and cultural level.

Social and cultural changes since the 1990s have rapidly shrunk the powerful social influence of these Baek Nakchung and 『Changbi』 camps, and Baek Nakchung's Realism has also lost its clarity in the process of expanding its reach outward. However, this predicament of Baek Nakchung's Realism was obvious in the 60s. Baek Nakchung's Realism is the theory of pointing out 'not true' in order to find 'true'. In fact, a mindset similar to Baek Nakchung is surprisingly found in F.R. Leavis, a conservative intellectual in England. Just as Leavis's literary theory has secured its own authority as a transcendental ideology that focuses on the individual's 'true' life or essence, Baek Nakchung's thinking on authenticity also comes back to an intuitive authority to avoid rational attacks.

Of course, we can not just explain similarity between Leavis and Baek in terms of ideology alone. It was the enthusiasm of the modern subject pursuing

'authenticity' against the existing system, the Passion of the Real of the 20th century, the desire to find 'the solid thing that does not melt' in the experience of Modernity, and most of all, it was the strategy of the Melancholic Subject. Now the main practice of our society should be toward futility and cynicism. This is why Baek Nakchung's Realism needs to evolve. In order for our age to rediscover its potential again at this limit, it will be necessary to escape the Melancholic strategy.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리얼리즘은 넓게 잡으면 모든 근대 문학을 일컫는 말이고, 좁게 잡으면 이론가마다 시대마다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이 글은 그 방대한 리얼리즘 논의 중 ‘시민/민족/민중문학론’ 진영의 ‘리얼리즘론’¹⁾만을 추려, 그 아래 깔려있는 욕망과 세계관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한다. 70~80년대 진보적 문학 담론의 주류를 형성했던 ‘리얼리즘론’의 성장에는 백낙청을 중심으로 한 『창작과 비평』 그룹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이에 이 글은 당시 ‘리얼리즘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백낙청의 60~80년대 ‘리얼리즘론’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를 위해 「시민문학론」이 실린 『민중문학과 세계문학Ⅰ』을 비롯하여, 그의 평론집 『민중문학과 세계문학Ⅱ』과 『민중문학과 세계문학Ⅲ』을 다루고자 한다.

‘리얼리즘론’에서 말하는 ‘리얼리즘’이란, 단지 기법상의 사실주의를 이르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총체적 현실을 사실주의 기법에 의거하여 포착해, 현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원대한 문학적 이상이였다. 백낙청에 따르면, ‘진정한 리얼리즘’은 필연적으로 ‘진정한 현실’을 들춰내고 그 진정한 현실에 대응하는 ‘전망’을 제시할 수 있었기에, 단지 기법이나 양식의 개념으로 수렴될 수 없는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²⁾이었다. 다시 말해 ‘리얼리즘론’은 ‘표층’의 현상을 넘어 ‘심층’의 모순을 포착하고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실천에의 의지’를 확보하는 문학적, 사회적, 역사적 기획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드러난 표층 아래 드러나지 않은 심층이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은, 지금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무언가를 암묵적·당위적으로 상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리얼리즘론’의 사유 아래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 현실 너머로 도래할 ‘진정한 현실’을 나누는 전형적인 이원론적 세계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층’의 무질서한 다양성을 보이지 않는 ‘심층’의 근본적인 총체성으로 꿰뚫어보려는 ‘리얼리즘론’의 문제 해결 욕망이 뚜렷한 데 비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

1) 이 글은 다수의 리얼리즘 개념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연구 대상인 백낙청의 ‘리얼리즘’과 ‘리얼리즘론’에 따옴표를 사용하고, 사조나 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은 모두 사실주의로 표기하였다.
 2) 백낙청, 「리얼리즘에 관하여」, 『민중문학과 세계문학Ⅱ』, 창비, 1995, 281쪽.

법'은 매우 모호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리얼리즘론'이 추구하는 '진정한 것'은 눈앞에 존재하는 '진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상상적 대안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것'에 대한 열망은 항상 지금 이곳을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진정한 것'을 향한 열망의 뒷면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것'의 '부재'가 새겨져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진정하지 않은 현실이 이데올로기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은 것'의 구별이 허구적 이데올로기라고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리얼리즘론'의 이데올로기를 다양한 층위에서 살펴보면, 그 '진정함'에 대한 추구가 결국 이데올로기적 허무와 창작적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서론에서 69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된 '시민문학론'을 중심으로 '리얼리즘론'의 철학적·사회적·미학적 입장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리얼리즘론'의 문학적 실천에 초점을 맞춰 그 속에 담긴 정치적 무의식과 이데올로기를 살펴 보려한다.

제 2 절 연구대상 및 문제제기

백낙청의 문학적 탐구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소간의 진폭을 가지고 변화해 왔지만, 청년 백낙청의 가장 직관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후 문학론들의 기본적 개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문학론'은 그의 문학적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시민문학론'은 보편적 인간상으로서의 '시민'을 강조하고, 그 시민의 모습을 담아낼 문학적 이상으로서의 '시민문학'을 지향하는 문학론이다. '시민문학론'은 '소시민 의식'을 내세운 당시 문인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여, '시민' 개념의 기존 계급적 의미를 지양하고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할 이상'으로서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또한 이렇게 "쟁취하고 창조하여야 할 미지·미완의 인간상"을 찾아가는 거창한 '시민의 길'을 굳이 문학이 맡아야 할 이유로,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철학자'들 이래, 작가와 지식인들이 결정적인 역사행위의 선도자 구실을 하는 것이 통례"이며 "시민의식을 창조하는 작업이 평범한 정치가, 기업가 또는 상식인에게 맡겨질 만큼 단순치가 않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³⁾

3) 백낙청, 「시민문학론」,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비, 2011, 24~25쪽.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말하는 ‘시민의식’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역사적 모델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시민의식의 시작’이라 평가하고 “시민 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철학자들의 문학 ‘뒤에’ 찾아온, 프랑스 혁명일 것이다. “18세기 계몽주의는 어디까지나 시민혁명의 ‘준비’였고, 독일 고전주의는 그 ‘방관’이었던 데 반해 19세기 전반의 리얼리즘 문학은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된 시민사회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19세기 서구 사실주의 문학이야말로 ‘시민문학’이고, 시민문학을 등장시킨 프랑스 혁명 정신이야말로 ‘시민의식’이 되는 것이다.⁴⁾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에 견줄만한 시민혁명이 부재했던 한국의 ‘시민문학’에 대해, 백낙청의 평가가 인색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우리 역사 속에서 ‘시민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 사건으로 3·1운동과 4·19혁명 정도를 꼽지만, 3·1운동은 “일제통치를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4·19혁명은 “위대성과 빈곤”을 동시에 지닌 ‘미완의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온전한 ‘시민의식’이라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그는 “시민의식과 그 시민의식의 기막힌 빈곤을 동시에 체험”한 한용운과 김수영 정도를 ‘시민문학’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미완의 혁명’이 ‘미완의 문학’을 낳는다고 결론짓는다.

결국 ‘시민문학론’은 사회와 문학 양쪽에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에서는 ‘시민의식’을 성숙시켜 ‘시민혁명’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더욱 높은 ‘시민의식’을 가질 것, 문학에서는 그러한 ‘시민의식’의 원인이자 결과로서의 ‘시민문학’을 완성해내라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시민 문학’을 ‘시민다운 시민’을 그리는 문학이라 설명하는, 사회와 문학에 대한 선순환적이고 일원론적인 설명이 보다 설득력을 얻으려면, ‘시민다운 시민’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에 대해 우리가 이 글에서 찾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답은 떼야르 드 샤르댕의 견해에 기대어 밝히는 인류의 “우주 진화사적 위치”와 “자유·평등·우애”에 대한 “우주론적인 근거”⁵⁾와, “사랑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시민이 있고, 사랑이 없는 자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시민이 못”된다는, 즉 ‘사랑’이 ‘시민다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서 그는 “사랑을 시민의식의 정확한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날”이라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가능하지 않았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이 오면 모든 시민문학이 바로 세계의 문학, 인류의 문학”이 될 것이라고 기원하면서, 70년대 한국 문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민

4) 앞의 책, 28쪽, 34쪽.

5) 같은 책, 26쪽.

문학론'을 마무리한다.⁶⁾

우리는 여기서 '시민다운 시민'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시민다운 시민'을 그려내야 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찾아 볼 수는 있다. 그의 '리얼리즘론'은 여기서 태동한다. 그는 "시민문학이 리얼리즘을 요구"하는 "필연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법상의 자연주의"라는 방법론과 "진정한 리얼리즘"이라는 이념을 종합한, '기법상의 자연주의를 수반하는 진정한 리얼리즘'이라는 문학적 이상을 새로이 수립한다. 그에 따르면 '리얼리즘'이 당대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로 특징지어지는 것은, "건전한 사회의 시민"이라면 옹당 "사회에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고, 그럴 때 "만인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기법을 써서 그려낸 문학이 적격일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지, 단지 '리얼리즘'이 기법상의 개념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⁷⁾

다시 말해 '진정한 리얼리즘'은 기법이나 양식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인간을 보는 어떤 '원숙한 관점'과 이에 수반되는 '균형'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요지다. 그는 발자크와 톨스토이의 "소재선택이나 자연주의적 기법이 시민문학으로서의 리얼리즘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면서도, 비슷한 기법·비슷한 소재를 가지고도 그들의 위대한 전통을 잊지 못하는 수많은 작가들과는 근본적인 세계관·인간관의 차원에서 구별되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발자크와 톨스토이를 비롯한 19세기 사실주의 문학의 위대함은 "그들 특유의 '원숙한 관점'"과 "세계관·인간관"에 기인하며, 이런 '원숙한 관점'에 의해 쓰여진 "리얼리즘 소설의 성숙이 시민문학의 진일보를 뜻한다"는 것이다.⁸⁾

이렇게 사실주의적 방법론을 포함한 '리얼리즘론'의 당위적·규범적 논리는 '시민문학론'이나 '민족/민중문학론' 같은 국내 문학론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국 문학과 '모더니즘' 문학 전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글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는 20세기 초반 이후 서구 문학의 실험적 경향과 분화를 언급하며,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이 우리 시대의 문학에서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핵심적 쟁점"이라 규정하고,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단지 현대 사회의 "퇴폐와 퇴영의 증상"이라고 낮게 평가한다.⁹⁾

이는 앞서 언급했던 3·1운동과 4·19혁명 이후의 문학에 대한 평가처럼, 문학과 사회를 매개 없이 연결 짓는 다소 도식적인 문학사회학적 관점으로, 문학과 사회를 동일한

6) 앞의 책, 96~97쪽.

7) 같은 책, 35~36쪽.

8) 같은 책, 36~37쪽.

9) 백낙청, 「모더니즘에 관하여」,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395~396쪽.

모더니티로 묶어 일직선상에 놓았을 때에만 성립 가능한 평가이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으로 시민의식이 만개했을 무렵 출현한 사실주의 소설은 주체의 실천과 환경묘사가 조화를 이루었으므로 ‘새로운 고전’이 될 수 있지만, 건설했던 부르주아의 시민의식이 왜곡되고 자본주의의 모순이 고도화되면서 나타난 ‘상징주의적·반자연주의적 경향’은 “시민의식의 구체적 표현이 사실성을 요구하는 원래의 논리가 변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현대예술의 큰 고민”거리가 되는 식이다.¹⁰⁾

주체의 붕괴를 다룬 ‘모더니즘’ 예술에 대해 그가 갖는 거부감은 그의 견고한 철학적 지평을 짐작케 한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향과 일치하는 ‘시민의식’을 균형 잡힌 사실주의적 소설에 담길 원했고, 그 소설을 통해 자신의 원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길 꿈꿨다는 점에서 매끈하게 완결된 근대적 주체였다. 그래서 그는 이념으로서의 ‘리얼리즘론’과 ‘리얼리즘’의 공식적 ‘전통’을 수립한 후, 그 규범적·사법적 시선을 통해, 완결되지 않고 비합리적이며 불균형한 ‘모더니즘’ 소설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문화적 비판을 수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렇듯, ‘리얼리즘론’을 통해 근대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백낙청의 실천이 역설적으로 단선적·균질적인 근대성의 한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리얼리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19세기 자연주의 소설부터 모더니즘의 병폐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포스트모더니즘 소설까지, 그 수많은 소설들은 결코 ‘주체의 붕괴로 인한 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 어려웠다. 그 폭과 깊이를 단숨에 묶어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진정한 문학인 ‘리얼리즘’과 진정한 문학이 아닌 것들로 나누는 방법뿐이었고, 그는 그렇게 당대의 많은 작품들을 ‘모더니즘’, 즉 진정한 문학인 ‘리얼리즘’이 아닌 것들로 단숨에 묶어버렸다.

그러다보니 ‘리얼리즘론’을 기반에 둔 그의 실제 비평은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평가라는 명성에 비해 지나치게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원숙한 관점’과 ‘균형’이라는 ‘리얼리즘론’의 추상적 기준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한, 문학의 본질은 작가 의식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었고, 작가 의식의 치열함을 기준으로 삼는 문학론은 필연적으로 교육과 계몽의 문학론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백낙청은 김수영의 시가 “그냥 어렵기만 한 가짜 시들과 구별”되는 것은 “어딘가 쉽게 공감되는 인정스러움”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그 디테일 하나하나의 뜻이 얼핏 들어오지 않더라도, 또 작품의 전체적 동향에 반드시 만족하지 않더라도, 도전적인 용기와 자상한 마음씨

10) 백낙청, 「시민문학론」, 38쪽.

를 아울러 갖춘 시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김수영 시의 위대함이라는 것이다¹¹⁾. 그러나 이를 ‘김수영 시’의 위대함이라 말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김수영 시’의 위대함이 아니라 ‘시인 김수영’의 위대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한 없는 비학문적 개념으로 문학론을 세우고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매개 없이 사유하는 휴머니스트에게 작품의 위대함은 치열한 작가의식에 의해 결정된다. ‘리얼리즘론’은 근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현실’을 이룩하기 위한 열망을 ‘진정한’ 작가의식과 ‘진정한’ 시민의식/민주성에 투사했다. 그리고 그것을 “만인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¹²⁾ 것이라 믿고, 보편성을 전유했다. 이 글은, 보편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백낙청과 ‘리얼리즘론’이 이룩한 많은 사회적·문학적 실천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천과 투쟁에 새겨진 정치적 무의식과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새로운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리얼리즘론’의 힘이자 곤경이 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보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백낙청과 ‘리얼리즘론’이 한국 문학에서 차지한 위상만큼이나, 그를 둘러싼 선행 연구들도 오랜 시간 동안 수적으로 막대하다. 그 중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선행 연구들은 거칠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백낙청의 근대화 담론의 한계를 비판하는 연구들이다.

강정구는 70~90년대 ‘민족문학론’을 대상으로, 민족문학론에 담긴 근대에 대한 인식이 ‘억압과 저항’이라는 ‘이항대립적 시선’으로 도식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도식적인 시선으로 근대화와 근대 극복이라는 이중 과제를 제시한 백낙청의 문학론에 대해, “지배권력과 민중의 관계가 혼성적인 근대의 상황을 간과한 채 억압에 대한 극복·저항 방안을 모색한 독아론적인 논리”라고 비판하고 있다.¹³⁾

김수립은 백낙청의 문학론과 박정희 통치 논리 사이에 “‘못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삶이 잠재되어 있었으며, 논리와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진체의 차원에서” 둘의 주체화 과정은 쌍둥이라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텔로스를 부여했을 뿐, 역사적

11) 백낙청,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148~149쪽.

12) 백낙청, 「시민문학론」, 36쪽.

13) 강정구, 「1970~90년대 민족문학론의 근대성 비판」, 『국제어문』 38, 2006, 287~310쪽.

목표를 향해 각성하고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둘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삶에 부여된 목적을 실현하는 과제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실험을 망각에 빠뜨림으로써 주어진 것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사고하는 방법을 궁핍”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박정희 시대의 “끈질긴 유산”이라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¹⁴⁾

강동호는 장편소설을 둘러싼 2000년 이후 논쟁에 대해, 장편소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창비’ 진영의 비평가들을 향해 “끊임없이 ‘근대’라는 기표를 호명하면서 거대담론을 바탕으로 한 장르의 위계화를 또다시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근대 성취와 근대 극복을 동시에 강조하며 그 전투에 ‘장편소설을 근거지로 삼자’는 ‘창비’의 주장에 대해, 저자는 “근대에 대한 강박적 초월의식”이며 “근대를 선취하고자 하는 목적론과 동행하는 한 장편소설이 리얼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으로 물신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지적한다.¹⁵⁾

두 번째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백낙청의 민족주의적·식민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연구들이 있다.

손유경은 백낙청이 “보편의 헤게모니적 본성”을 직시하지 못한 채, “주어진 보편에 공헌하는 특수”라는 발상으로, 리비스를 ‘번역’하는 대신 한국의 리비스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백낙청은 제 3세계 지식인이 실천해야 할 “수행적 번역 대신 보편의 대역”을 자처했는데, 이러한 선택에 대해 손유경은 정과리의 말을 빌려 “후진국 콤플렉스”라 평가한다.¹⁶⁾

권보드래는 “공간에서 남한의 독점적 지배/시간에서 대한민국 체제의 특권화/인식론적 민족주의 비판”이라는 세 가지의 계기 속에서 ‘민족문학’과 ‘민족’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더구나 장르 문학을 제외하면 “문학은 오늘날 절로 소수적이며 절로 비판적”인데 “문학 내부에서 ‘민족문학’에 대한 대타항”을 찾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한국문학’과 ‘민족문학’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이 극소해진 상황에서 ‘민족문학’의 ‘민족’과 ‘문학’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와 ‘문학주의’에 갇히지 않는 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⁷⁾

14) 김수림, 「4·19혁명의 유산과 궁핍한 시대의 리얼리즘」, 『상허학보』 35집, 2012, 141~176쪽.

15) 강동호, 「리얼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장편소설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문학과 사회』 Vol.26 No.3, 2013, 247~278쪽.

16) 손유경,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을 통해 본 1970년대식 진보의 한 양상」, 『한국학연구』 제35집, 2014, 149~174쪽.

17) 권보드래, 「민족문학과 한국문학」, 『민족문학사연구』 44, 2010, 197~234쪽.

박연희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수용되기 이전 그 ‘전사(前史)’로서의 ‘제3세계 문학론’을 점검하면서, 당시 백낙청이 영미문학에 수렴되지 않는 고유한 영역으로서 미국 흑인 문학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민족문학론’의 세계문학화를 위한 고민의 산물인 ‘제 3세계 문학론’이 “미국이라는 중역을 거쳐 세계문학의 선진적인 범례를 재발견하고 있어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백낙청 자신은 서구중심주의를 경계했지만, “아프리카 아닌 미국 흑인문학을 제3세계 텍스트로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중역된 아메리카니즘’에 연루”된 한계를 지녔다고 평가한다.¹⁸⁾

세 번째는, 백낙청 사유의 내재적 추상성과 균열을 지적하고, 그 관념성으로 인해 실제 그의 사회적 실천 역시 보수화되거나 추상화되었다고 비판하는 연구들이다.

김미영은 백낙청의 ‘리얼리즘론’이 ‘민족’이나 ‘민중’이라는 용어를 고수하면서도, “로렌스의 문학관이나 불교적 진리, 하이데거식의 예술론을 지속적으로 접목시켜 점차 그 비중을 키워나간 사실은, 그의 리얼리즘론이 구도자적이거나 다소 관념적”이라는 타당한 비판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가 로렌스를 ‘리얼리즘론’의 전범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모호하다는 점, 로렌스와 하이데거의 예술론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균열이 감지된다는 점, 거기에 원불교적 진리관에 천착하는 구도자적 성격을 첨가했다는 점 등이 “채워지지 않은 뚜렷한 간극들을 내포”한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렇게 간극이 감지되는 백낙청의 비평이 현실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로 “간극들을 간과할 만큼,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문예운동의 이론적 중심에 대한 한국문단의 갈급함이 만들어낸, 단순화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¹⁹⁾

류준필은 백낙청의 일관된 ‘문학주의’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그 ‘문학주의’에 의해 오히려 의미의 ‘전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문학이 대단하다고 일관되게 믿어 오다보면 (중략) 대단하지 않으면 문학이 아니라는 믿음의 전도”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한 백낙청이 주장하는 ‘예술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를 넘어서는 ‘균형감각’과 ‘지혜’에 대해, 결국 그것들이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백낙청이 추구하는 세계가 “정치적 자유주의와 그 제도적 표현으로서의 입헌민주제”의 ‘제도화’로 귀결된다고 분석한다.²⁰⁾

18) 박연희, 「제3세계 문학의 수용과 전유 -『창작과 비평』의 미국 흑인문학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7집, 2016, 365~408쪽.

19) 김미영, 「백낙청의 리얼리즘론과 로렌스, 하이데거, 불교의 관련성」, 『한국현대문학연구』 44, 2014, 507~550쪽.

20) 류준필, 「백낙청의 리얼리즘론의 문제성과 현재성」, 『창작과 비평』 Vol.38 No.3, 2010, 366~390쪽.

이현석은 백낙청의 ‘시민문학론’이 사회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문학론이라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백낙청은 “시민의 문제를 현실의 사회관계에서 찾지 않고 ‘시민의식’에서 추출하고 그 내적 속성인 ‘사랑’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을 비껴나간다.” 즉 ‘시민’을 현실에 자리할 수 있는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역사적 당위로 변형시킴으로써 “독재 지배에 대항논리로 제시될 수 있었던 시민사회의 가능성 문제를 문학 담론 내에서 중심적으로 의제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실제로 백낙청이 독재와의 투쟁에서 문학적 실천보다 문학 외부의 사회적 실천에 주력했음을 지적하고, 이는 “현실의 전망을 역사의 지평에서 찾기 때문에 (중략) 사회 현실의 문제는 이차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 진단한다.²¹⁾

강동호는 김수영에 대한 백낙청의 평가가 변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변화가 ‘시민문학론’과 ‘민족문학론’의 인식론적 차이라고 주목한다. ‘시민문학론’의 추상적·관념적 ‘시민’ 개념이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이고 현실적 영향력을 갖기 어려운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민’을 대체할 ‘민족/민중’을 호출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모더니스트의 면모가 강한 김수영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저자는 ‘민족문학론’ 시기에도 “모더니즘을 극복한 리얼리스트 김수영이라는 초기의 해석학적 표상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호명된다는 점에서, “70년대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이 내세운 ‘민족’ 개념의 엘리트주의적인 속성”은 잔존해 있다고 평가한다.²²⁾

조연정은 70년대 백낙청의 문학론이 “후진국 민족 ‘문학’의 해방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부 계층의 ‘현실’적 해방은 요원”해 보이는 “문학근본주의자의 보편적 주장”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백낙청은 일관되게 ‘민중’과 ‘시민’을 강조해왔지만, 그것이 단지 ‘재현의 대상’으로 호출되었을 뿐이라는 점, 또한 그가 “문학을 통한 ‘인간해방’ ‘인간다운 삶’ 등의 용어를 쓸 때 그것은 특수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집단의 해방이기보다는 보편적 인류의 해방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70년대 그의 문학론은 “운동으로서의 문학”이기 이전에 ‘문학을 위한 문학’이라고 평가한다.²³⁾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백낙청을 비롯한 『창비』 진영이 문학장에서 수행한 실천과 통합 전략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21) 이현석, 「4·19혁명과 60년대 말 문학담론에 나타난 비-정치적 감각과 논리:소시민 논쟁과 리얼리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5, 2011, 223~254쪽.
 22) 강동호, 「민족문학론의 인식 구조 -1960~70년대 백낙청의 김수영론에 대한 비판적 독해-」, 『인문학연구』 제51집, 2016, 137~173쪽.
 23) 조연정, 「주변주 문학의 (불)가능성 혹은 문학 대중화의 한계 -백낙청의 ‘시민/민족/민중문학론’ 재고-」, 『인문학연구』 제51집, 2016, 323~354쪽.

김영찬은 60,70년대에 『분례기』에 바쳐진 백낙청의 고평을 근거로, 그가 문학과 사회를 연결하여 사유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저자는 『분례기』에 대한 비평이 “리얼리즘에 대한 백낙청의 이론적 구상이 본격적인 실제비평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사례”임에 주목하며, “백낙청에게 있어 리얼리즘은 그 자체로 예술의 본질을 실현하는 미학적 원리이자 개인과 공동체의 소통적 결합에 기초한 정치적 실천의 인식적·감성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었다고 분석한다. 그런 의미에서 『분례기』에 바쳐진 이례적인 고평은 “문학의 정치적 할 일을 예술의 본질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숙고”한 ‘문학주의자’가 60년대 근대에 대응하는 ‘문학적 전략’으로서의 ‘판돈’이었다고 평가한다.²⁴⁾

김나현은 70년대 중반 ‘창비’의 지면에 아동문학론이 대거 게재되는 것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하위문학으로 여겨지는 아동문학에 지면을 할애했다는 사실에 대해, 아동문고 출판전략과 맞물려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활로였다는 연구도 있지만, 저자는 아동문학론을 “민족교육론으로 수렴시키고 있는 ‘창비’의 담론통합전략”이라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창비’ 필진인 이오덕의 ‘서민문학론’은 “아동이 성장하는 주체임을 강조”했고, 발전론적·진보적 시간관에 입각하여 “(성인)작가가 (아동)독자보다 지적으로 탁월한 우위”임을 보장했다. 다시 말해 이 시기 창비의 아동문학론은 “백낙청의 문학론이 전제하고 있는 엘리트주의와 합치”되며 “문학으로 하여금 독자를 견인”한다는 이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다.²⁵⁾

손유경은 ‘창비’ 문인들이 민중에게 보내는 시선의 욕망을 해체한다. 그에 따르면 “지식인의 사명에 관한 논의가 ‘창비’ 지면을 가득 메운 가운데 몸을 가진 민중의 수행적 실천에 관한 기사는 찾기 어려웠”다. 결국 유신체제 아래서 잡지를 발간한다는 취약성과 행위성에 비춰볼 때, ‘창비’ 문인들에게는 ‘창비’를 발간하는 그 자체가 자기 구성적이고 수행적인 실천이었으며, 그 자체가 ‘민중적 몸의 현현’이었다는 것이다.²⁶⁾

이상의 연구들에는 공통적으로, ‘진보’와 ‘근대’를 목표로 한 백낙청의 단선적·서구적 역사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역사관이 균질적인 근대성을 상정하고 그 근대성 주변에 산재한 혼종성과 다양성을 삭제해버린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연구들처럼, 백낙청이 지닌 강박적 ‘근대’ 추구

24) 김영찬, 「방영웅의 『분례기』와 백낙청의 리얼리즘」, 『겨레어문학』 제56집, 2016, 36~64쪽.

25) 김나현, 「『창작과 비평』의 담론 통합 전략 -1970년대 아동문학론 수용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0, 2013, 327~355쪽.

26) 손유경, 「현장과 육체 -『창작과 비평』의 민중지향성 분석」, 『현대문학의 연구』 56, 2015, 37~69쪽.

의 원인을, 각종 모순을 포함한 체 서둘러 진행된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같은 지평에 놓고 이해한다면, 백낙청에게 ‘근대’라는 관념이 갖는 근원적인 상징 의미를 놓치기 쉽다고 본다. 물론 당시 독재 정부에 의한 근대화 추진은 그의 사유와 투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의미를 초월한 보다 근원적이고 감성적인 면 역시 그의 사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대’라는 말로 표상된 가치들에 대한 다각적·다층적 이해보다 ‘근대’의 사전적 의미와 한국 근대화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면, 형이상학자로서의 백낙청의 사유는 상당부분 소실될 것이다. 특히 백낙청과 리비스의 공통점에 주목한 손유경의 연구는, 둘 사이의 유사한 이데올로기를 점검하는 본 연구와 상당부분 같은 이해를 공유한다. 그러나 손유경의 연구가 백낙청의 ‘후진국 콤플렉스’와 ‘리비스의 대역’으로서의 욕망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연구는 둘 사이의 사회적 환경 차이를 뛰어넘는 근원적 욕망과 세계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와 ‘근대성’에 대해 보다 발본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민의식’처럼 ‘근대’와 관계 깊은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들이 지닌 복수의 층위들을 동시에 점검해보려 한다. 이런 점검을 위해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의 연구들처럼, ‘리얼리즘론’의 내재적 추상성과 균열이 실제 사회적 실천과 문학장 내 전략에서 어떤 한계로 작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 역시 백낙청의 사유에 담긴 정치적 무의식과 이데올로기를 중요하게 살피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연구들 중 다수가 지적한 것처럼 백낙청의 추상성이 ‘의도치 않았지만 필연적으로 드러난 한계’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한계라고 보이는 그 지점이 백낙청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음에 주목했다. 그래서 이 글은 그의 사유에 담긴 정치적 무의식과 이데올로기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되,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에서 결론짓지 않고, 다른 층위로 심화·확대해가면서 한 층위에서의 ‘한계’가 다른 층위에서는 한계가 아니거나 혹은 ‘핵심’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제 2 장 ‘리얼리즘론’의 정치적 무의식

제 1 절 백낙청의 정치적 무의식

서론에서 살펴본 ‘리얼리즘론’의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리얼리즘론’이 방법론적·미학적 측면에서는 균형 잡힌 19세기 사실주의 문학을 전범으로 삼고 있고, ‘세계관·인간관’의 측면에서는 사회와 인간을 보는 원숙한 관점과 균형을 중요시여기며, 이 기준에 따라 실제 비평에서는 상당히 당위적·규범적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리얼리즘론’에서 말하는 ‘시민다운 시민’은 상당한 교양을 갖추고 “기존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수행하는 독립된 주체로 상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⁷⁾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리얼리즘론’이 자신의 문화적·사회적·철학적 층위 들을 통합적으로 배치할 수 있었던 ‘완결된 근대적 주체’의 문학적 이상이라는 것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와 인간을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파악한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을 지향했고, 사회적 관점에서 프랑스 혁명을 모델로 한 휴머니즘적 시민사회를 꿈꿨으며, 철학적 관점에서 주어진 것들(소여)을 내면에서 반성적·이론적으로 재구성하는 근대의 성찰적 주체였다.

이토록 단일한 모더니티를 지녔던 백낙청에게 60년대 한국의 현실은 그야말로 안타깝고 후진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역사적 사명”과 “깨달음=실천”을 일관되게 주장한다.²⁸⁾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개념은, 소수의 ‘깨달은 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다수의 ‘깨달음의 부재’를 알리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누군가 자신을 ‘깨달은 주체’로서 인식한다면, 그는 깨닫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을 계몽하여 자신이 깨달은 것을 알려줘야 할 ‘역사적 사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박탈감과 책임감의 혼합 속에서, 백낙청 특유의 ‘민중 친화적인 엘리트주의’와 ‘특수성을 강조하는 보편성에의 열망’은 유래한다. ‘불완전하고 전근대적인’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그가 느꼈을 좌절과 박탈감이, 자신의 모더니티에 맞는 ‘완전하고 근대적인’ 역사적 가능성들을 그 현실 속에서 찾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좌절과 열망은 그가 ‘시민문학론’을 수립하며 ‘민중’ ‘민족’과 ‘시민의식’ 등을

27) 백낙청, 「시민문학론」, 35~38쪽.

28) 백낙청,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130쪽.

비역사화 해가는 과정 속에 잘 드러나 있다. 먼저 그는 역사적이고 계급적인 개념인 ‘시민’을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전유하기 위해 ‘민중’과 ‘민족’을 호명한다. 물론 ‘민중’과 ‘민족’ 역시 역사적·계급적 개념이지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민중이 움직인 역사적 사건들을 진보를 향한 일직선상의 ‘보편적 역사’ 무대 위로 소환한다면, 그것은 쉽게 초월적 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편적 역사’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근대적 시민의식을 향한 한걸음 진전”에서 대장정을 시작하여, 동학농민운동이 “민중은 민중대로 시민의식의 성장”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가능성을 얻는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선구적 의식은 단지 ‘지식인’의 의식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잠재적 가능성은 “당시 한국 농민층의 몽매성에 근거한 많은 반시민적 요소들 때문에 당대의 선진적인 지식인들의 노력과 일체가 된 진정한 시민의식을 이룰 수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노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시민의식은 “참다운 시민의식 형성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인 “지식층의 근대적 의식과 민중의 저항정신”이 하나로 모인 3.1운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형성될 수 있었다. 그 후 3.1운동은 다소간의 성과와 ‘시민의식’의 발현을 보여주지만 “‘식민지 시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실패로 귀결된다. 그러나 “참다운 시민의식”을 향한 일직선의 역사는 끊기는 법이 없다. “아무리 짧은 동안 아무리 어설프게 형성되었던 시민의식이라도 고스란히 도로 없어질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4.19의 전통 속에서 살고 있듯이 3·1운동의 전통 속에서 살고 있고 동학의 전통, 실학의 전통, 심지어 원효의 전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²⁹⁾

푸코는 계보학에 대해 설명하는 글에서, 계보학을 역사학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역사학이 ‘기원’에 대한 추구임에 반해 계보학은 사물들이 실제로는 “전혀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비밀”, 단지 “우연으로부터 태어났음”을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즉 역사학에서 역사란 가장 본질적이었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는 ‘필연적 과정’이지만, 계보학에서 역사란 ‘우연’과 ‘사적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건들의 집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보학자들이란, 역사학자들에게 “기원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그 기원이 그저 “형이상학적 연장”에 불과함을 폭로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³⁰⁾ 푸코의 이러한 말을 받아들인다면, ‘시민문학’의 신성한 발원지를 찾아 과거를 재구성하는 백낙청의 역할은, 경건한 역사학자로서의 ‘기원’ 찾기이지, 기원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힌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계보학자의 그것은 아닐 것이다.

29) 백낙청, 「시민문학론」, 53~59쪽.

30) 미셸 푸코, 이광래 역, 「니체, 계보학, 역사」, 『미셸 푸코』, 민음사, 1989, 330~336쪽.

그는 관념적 실체로서 ‘시민의식’을 수립한 후, 그 관념에 실제 과거를 소급 적용한다. 현재가 요구하는 과거를 추출하여 ‘시민의식’의 역사를 만들고, 그 ‘시민의식’을 담아낼 그릇으로 ‘진정한 리얼리즘 문학’을 주장하며, 그 진정한 리얼리즘 문학의 전통과 전범으로 19세기 서구 사실주의 문학을 지목하는 식이다. 이렇게 철저히 내면화된 서구적 시선과 진보적·단선적 역사관으로 한국 문학을 바라보는 근대의 ‘역사학자’는 ‘한국적 시민문학’의 역사를 서구적·보편적 역사 속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는 계몽적 기획을 수행한다.

이 기획에 따라 실제 사건들 사이로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도 있게 재구성되면, 이렇게 재구성된 이야기를 하는 자와 듣는 자는 실제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는 가운데 “하나의 ‘진실된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이미 발견의 대상이 그 안에 자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자라게 된다. 이제 묻혀있던 ‘진실’을 ‘발견’하게 된 주체는 자신이 찾아낸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선각자 의식을 갖는다.³¹⁾

물론 선각자로서 백낙청이 걸어온 사회적·문학적 실천의 길이 선의로 충만했음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백낙청은 선진적 교육을 받고 온 후진국의 지식인으로서 조국의 좌표 지점과 그 좌표의 보편성 확보를 고민했고, 그에 맞는 역사학을 세웠으며, 그 역사학의 좌표에 맞춰 민중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계몽적·규범적 태도를 지녔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가 그만의 독보적인 실천이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실제로 거의 모든 한국문학사가 기반으로 삼고 있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점은 이미 문학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을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³²⁾ 있기 때문이다.

“민족이라는 단위로 볼 때 식민지와 분단, 내전 등 치명적으로 ‘왜곡’되고 ‘파행적’인 과정을 겪어 왔다는 경험의 기억이 거의 무의지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국문학사의 장”³³⁾에서, 서구적·보편적 근대와 같은 “어떤 초월적인 실체를 불변자로서 전제하고 그에 따라 문학사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실의 차원에서 벽에 부딪”히기 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고유의 것’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아예 ‘국문학사’라는 담론의 장에 들어서는 것도 불가능”하다.³⁴⁾ 때문에 한국 문학의 독자성과 주체성

31) 허병식, 「한국문학사 서술의 정치적 무의식」,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집, 2010, 9~10쪽.

32) 같은 책, 10쪽.

33) 차승기, 「민족주의, 문학사, 그리고 강요된 화해」,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62쪽.

34) 같은 책, 46쪽.

은 한국 문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숭고한 것’으로 강조되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숭고한 ‘고유성’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서구적 보편성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서구적 근대라는 보편적 좌표계에 대한 내면화와 한국 문학의 독자적 좌표를 찍으려는 실천은 ‘동일한 좌표계’에 대한 동일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리얼리즘론’은 지식인 주체 특유의 박탈감과 책임감으로 지탱되며, 보편성과 고유성 사이의 긴장과 균열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긴장과 균열은 백낙청의 ‘민중’에 대한 양가적 묘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의 문학론이나 비평 속에 등장하는 민중 주체는 항상 ‘민중적 건강성’과 ‘민중적 넉넉함’ 등으로 과도하게 이상화되는데, 이러한 관념적 묘사와 대조되는 ‘현실 대중’에 대한 불신 역시 과도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대중에 대한 백낙청의 적대감과 불안감은, 윌러스틴과의 대담 자리에서 윌러스틴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그의 ‘지혜의 위계질서’ 발언에서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그는 윌러스틴을 향해 ‘지혜의 등급’을 설명하면서, “이런 차이를 개인들이 자유롭게 인정하고 (중략) 앞선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혼란이 일어나고 도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비민주적인 통제와 강압이 여전히 필요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가 바라는 사회의 질서는 뒤쳐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앞선 사람들의 자비로운 통치와 앞선 사람들의 지혜를 존경하는 뒤쳐진 사람들의 조용한 복종인 것이다.³⁵⁾ 이러한 관점이 단지 사회운동가가 지닌 것이었다면, 그 폐단은 그리 크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당대 유력한 문학 비평가였고, 그가 ‘지혜의 위계질서’에서 위를 차지하는 지식인임을 자임하며 ‘진정한 리얼리즘’을 기준으로 삼아 당대 작품들을 스케치하듯 빠르게 재단한 것은 지나치게 규범적·사법적이며 초월적인 태도였다.

가령 그에게 최인훈은 “개인적인 자아에의 집념이나 그에 따른 무절제한 관념유희에 흔히 빠지는” 작가였고, 『광장』은 그러한 작가가 “자의식 과잉”에 빠져 “시민적 광장”을 제시하지 못한 작품이었다. 그는 “진정한 시민의 ‘광장’은 ‘밀실’에서 벗어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밀실’과 ‘광장’의 구별이 없어지는 곳이다. 그러한 ‘시민적 광장’을 (중략) 만드는 힘이 곧 ‘시민의식’이요 사랑이라면 삶의 광장은 미완의 상태로나마 사랑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바로 그 ‘사랑의 결핍’이 『광장』으로 하여금 “진정한 시민문학, 성공한 리얼리즘 소설의 위치에 못 오르게 하고 있다”고 낮게 평가한다. “독자로서 실감할 수 있는 사랑을 한 번도 못 보여주는 명준 자신의 내성적

35) 조영일, 『가라타니 고진과 한국문학』, 도서출판b, 2009, 97쪽.

폐쇄성”이, ‘사랑’이 있다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시민적 광장’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고 “이러한 명준을 대하는 작가의 애매한 감정도 온당한 사랑이라기보다 나르시시즘에 가까운 것”이라는 이유다.³⁶⁾

또 김승옥에 대해서는 『서울, 1964년 겨울』을 60년대 한국의 소시민 의식에 대한 ‘정직한 문학적 기록’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결국 이어지는 그의 다른 작품들이 “일시적 도피의 길이요 시민의식 파산의 길이며 새로운 노예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한다.³⁷⁾ 서정인에 대한 평가도 유사하다. 그에 따르면 「강」에서 서정인은 김승옥을 능가하는 상당한 “사랑의 균형”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결국 “자조와 자기연민의 성격, 소시민적 원한이 담긴 비웃음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기에 그 한계가 뚜렷하다.³⁸⁾

이렇게 ‘사랑’이라는 모호한 개념 하나만으로, 그는 당대 괄목할만한 작품들을 모두 ‘시민의식 부족’으로 낙인찍는다. 그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근거인 ‘사랑’은, 그것이 균형 잡힌 ‘사랑’인지 아닌지 전적으로 백낙청의 ‘지혜’에 기대어 판정된다. 물론 그의 이러한 당위론적 문학관과, 문학과 사회를 매개 없이 연결 짓는 직관적 비평 방식, 선명하게 주장되는 사회적 진보에 대한 신념에 의해 당시 한국 문학과 문학 제도가 정치에 비견될 만큼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토록 제한 없는 개념과 간절한 기다림의 태도는, 엄혹한 시절의 대안 담론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대 한국 문학이 깊어지게 된, 훌륭한 문학이라면 사회나 정치의 변화를 매개 없이 즉각 반영해야한다는 명에 역시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백낙청은 ‘분단의 모순’을 다룬 소설들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에서 “7·4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에 정통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분단의 비극을 정면으로 다루어 높은 예술적 성과를 이룩한 것은 황석영의 중편 「한씨 연대기」가 유일”하다고 평가한다. 이어서 그는 “같은 72년이지만 7·4 이후에는 직접 간접으로 이 주제를 다룬 소설이 훨씬 많아”졌고, “분단시대에 대한 인식의 전진과 확산이 뚜렷이 눈에 뜨인다”고 주장한다. “같은 72년이지만” 이렇게 ‘인식의 전진과 확산’이 뚜렷할 수 있는 이유로, 그는 “남북 공동성명의 충격에 따른 국민들의 민족적 각성에 힘입어, 작가들은 분단 내지 민족 분열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7·4 공동성명’이라는 정치·사회적 사건 뒤에 그에 상응하는 문학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36) 백낙청, 「시민문학론」, 82~83쪽.

37) 같은 책, 86쪽.

38) 같은 책, 87~88쪽.

한다고 믿는 그의 신념은, 질적으로는 “비록 흠족하달 수는 없을 정도지만” 양적으로는 증가했음을 계량할 수 있기 때문에 충족된다. 그리고 그 신념은 아무리 뛰어난 작품도 ‘7·4 공동성명’의 직접적인 영향을 드러내지 않으면, 진지한 비평적 대상조차 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³⁹⁾

백낙청은 ‘시민문학론’에서부터 “1960년대 한국사회·한국문학의 적극적 성과의 대부분이 4·19 시민의식의 소산인 동시에 60년대의 온갖 좌절이 4·19의 빈곤과 실패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문학과 사회를 매개 없이 연결하여 사유해왔다.⁴⁰⁾ 물론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 문학의 ‘명예’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백낙청을 향한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한국 문학이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백낙청의 ‘리얼리즘론’에 기댄 바가 크다. ‘리얼리즘론’의 민중적·민족적 지향과 규범적·사법적 형식은 단지 문학장 내의 투쟁에서만 뿐만 아니라, 문학장 바깥에서 벌어진 투쟁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얼리즘론’은 국가로 대표되는 현실 권력과 투쟁했다. 백낙청의 자부심과 확신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이다.

제 2 절 ‘리얼리즘론’의 상징투쟁

부르디외는 문학장과 지식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역설적으로 지적 장의 자율성이 한 작가의 촉발적인 행동을 가능케 한다. 작가는 문학 장에 고유한 규범의 이름으로 정치 장 속에 개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식인으로 만든다.” 이렇게 지식인은 “문화적 생산 장의 특수한 가치들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장 속에 개입”하여 지식인이라는 스스로를 ‘발명’한 존재들이다.⁴¹⁾ 그 첫 발명가는 에밀 졸라였고, 가장 ‘전적인’ 발명가는 사르트르였으며, 가장 한국적 발명가는 백낙청이었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졸라 이래로 이제 지식인들은 “참여에의 강요를 만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⁴²⁾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순수-참여 논쟁은 애초부터 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 없었다. 문학의 순수성을 고수하든, 문학의 사회 참여를 주장하든, 결국 이는 문학 장의 자율성

39) 백낙청, 「민족문학의 새로운 고비를 맞아」,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66~67쪽.

40) 백낙청, 「시민문학론」, 74쪽.

41) 피에르 부르디외,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177~178쪽.

42) 같은 책, 281쪽.

하에서만 성립 가능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순수-참여 논쟁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설명은 오히려 ‘상징투쟁’일 것이다. 실제로 문학의 사회 참여를 강력히 주장한 백낙청이 늘 강조한 것은 ‘문학주의’였다.

애초 지식인이라는 계급이나 문학인이라는 신분은 정체성을 선형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미묘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어떤 영구적·공식적인 인정 절차도 없이 장의 문법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들이다. 이 유동성은 ‘지적 장’에 속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이지만, 문학장의 문턱이 가장 낮은 이유로 인해, 문학인들의 정체성이 가장 모호하다. 문학에서의 언어는 오랫동안 수련을 거쳐야 하는 다른 예술 장르의 ‘예술적 언어’와 달리, 네이션에서 통용되는 실제 언어이다. 즉 원칙적으로 문학은 언어를 사용하는 ‘아무나’ 문학인이 될 수 있다는 개방적인 특징이 있다. 더구나 문학이 지닌 ‘원본 없는 형식’은 출판 시장이라는 토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은 책을 사보는 광범위한 독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학은 대중성과 불화를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아예 삭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장은 장 바깥을 향해 일정 부분 문을 열어두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고, 때문에 문학은 늘 자신의 ‘민주주의적’ 원심력과 장 내부의 구심력 사이에서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지식인들 중 특히 문학인들은, 스스로의 자기정의를 위한 자기구성적 발화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가 식민지 시절 ‘신문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신문정부’란, 식민지 조선에서 글 쓰는 지식인이 식민본국에 부역하지 않고도 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언론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상상적 정부였다. 당시 3·1운동 결과 탄생한 언론들은 “‘현실로 존재하는 식민권력’과 ‘상상적으로 상정된 반식민권력’으로서의 신문’이라는 가상의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스스로를 ‘신문정부’로 자임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⁴³⁾ 우리는 이 대목에서 독재 정권 시절 반독재의 상징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백낙청과 『창비』를 함께 연상할 수 있다.

백낙청은 60년대부터 시작된 지난한 상징투쟁 속에서 “‘우리는 문단이 아닌 국가와 상대하고 있다’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⁴⁴⁾을 획득했고, 일종의 ‘신문정부’로서 당대 사 람들의 자존심도 지켜주었다. 그는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참여 문학을 이끄는 비평가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형성해 갔고, 그 힘은 문학 장 내의 투쟁에서도 강력한 무기로 작

43) 박헌호,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 『상허학보』 17권, 2006, 117쪽.

44) 손유경, 「후진국에서 문학하기 - 세대교체기의 『문학과 지성』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 발표회자료집』, 2014, 59쪽.

용하여 그를 확고부동한 위치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백낙청의 곤란은 민주화 이후에 찾아왔다. 이제 그에게는 장 바깥으로부터 끌어와 장 내부의 투쟁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의 원천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90년대 이후 문학장은 장의 바깥 상황과 점점 무관해지는 ‘컨템포러리화’, 즉 ‘근대문학의 종언’이 빠르게 실현되어 가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백낙청은 가라타니 고진은 반대로, ‘근대문학의 위기’ 자체를 새로운 전선으로 삼아 투쟁을 시작하였고,⁴⁵⁾ 그 과정에서 ‘리얼리즘’의 외연을 넓히는 유연한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애초 자신의 위치를 ‘모더니즘’에 대항하는 ‘리얼리스트’로 선명하게 설정했는데, 이제 그런 식의 근대 문학장은 거의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고, 차라리 ‘근대문학의 종언’에 대항하여, 더 넓게 말하자면 ‘예술의 종언’⁴⁶⁾에 대항하여, 근대예술 전체를 변호해야 하는 장의 맨 앞줄에 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에게는 ‘리얼리즘’을 포함하여 ‘문학다운 문학’이라고 부를 만한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해졌다.

궁지는 여기에 있었다. 자신이 속한 근대 문학장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에 들어오는 작품들의 성격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자신의 ‘선언문’에 쓰여 있었던 ‘리얼리즘’의 개념은 거의 무화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리얼리즘’ 문학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의 ‘리얼리즘론’은 점점 외연을 넓히며 확장 보수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의 ‘리얼리즘론’은 예전부터 비판적이었던 진영 뿐 아니라 ‘창비다움’을 지지하던 사람들에게도 공격당할 만큼, 모호하고 광범위한 당위가 되어버렸다.⁴⁷⁾

그러나 이런 ‘리얼리즘론’의 위기적 요인들은 90년대 처음으로 배태된 것이 아니었

45) 백낙청은 가라타니 고진의 테제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근대의 모순이 끝나지 않는 한 근대 문학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그의 논거들은 근대문학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가치가 있다는 문맥으로 읽히기 때문에, 그는 역사화와 탈역사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46) 아서 단토, 이성훈 역, 『예술의 종말 이후의 예술』, 미술문화, 2012, 41~43쪽.
아서 단토는 미술사를 관통하던 ‘역사적 내러티브’와 ‘양식적 통일성’을 결여한 ‘모더니즘 이후의 시각예술’을 더 이상 ‘선언문 시대’의 미술이 아닌 탈역사적 미술, 혹은 컨템포러리 미술이라고 명명하며, 컨템포러리 예술이야말로 ‘예술의 종말’ 이후의 예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에 대해 “종말에 이른 것은 내러티브이지 그 내러티브의 주체가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가 종료되고 나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 테제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근대예술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둘의 판단은 거의 동일하므로, 이 글에서는 평가의 측면에서는 상반된 두 테제를 동시에 언급했다.

47) 백낙청을 상찬해온 하정일은 이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의 부재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근대의 모순을 건너뛰는 유토피아적 탈근대 기획은 실패한 기획이다. 이런 와중에 백낙청만큼은 탈식민주의를 통한 근대 완성과 근대 극복이라는 이중과제를 수행해 왔었는데, 이제 그마저 이중과제론의 문제의식이 퇴조하는 징후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하정일은 최근 백낙청이 민족 개념을 버리고 배수아, 신경숙, 박민규 등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한다.

다. 그것은 애초 ‘인류’와 ‘세계문학’을 향한 시선으로 ‘시민문학론’을 수립하던 시절부터 존재하다가 90년대에 비로소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시민문학론’에서 ‘한국적 시민문학’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백낙청은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선부른 서구 뛰어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시민의식’을 프랑스 혁명에서 그 만개를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개념으로 한정짓거나,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정치적 개념으로 한정짓지 않는다. 그는 역사 속에서 ‘시민의식’의 ‘기원’을 발명한 후, 이 ‘기원’을 탈역사화·탈정치화 시켜버린다.

“이제까지의 머뭇거림을 떨쳐버리고 ‘사랑’을 ‘시민의식’의 정확한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날을 우리는 적어도 내다볼 수는 있게 된 것이며, 그 날이 오면 모든 시민문학이 바로 세계의 문학, 인류의 문학이 되고 인류만이 아닌 ‘일체중생’을 완성으로 이끌고자 태고부터 움직여온 사랑의 작업이었음이 드러나리라”⁴⁸⁾라고 기원 또는 선언하는 말은 ‘문학론’이라기 보단 ‘신화’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문학과 사회’는 ‘문학과 신앙’으로 수직 상승해 버린다. 서구적·단선적 역사관과 계몽적·당위적 문학관이 신앙의 언어인 ‘무제한의 개념’을 만나, ‘인간다움’과 ‘삶’처럼 직관에 호소하는 독특한 ‘리얼리즘론’을 완성하는데, 이러한 형이상학적 문학론을 독재 정권과 싸우는 제 3세계 지식인의 저항적 담론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좀 더 광범위하고 야심찬 전략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백낙청은 ‘선언문 시대’의 문학, 특히 자신이 선언한 ‘진정한 리얼리즘 문학’을 아름답게 여겼고, 지키고 싶어 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리얼리스트이기 이전에, 충분히 모더니스트였다. 이러한 모더니스트 예술가들의 특징은 실제 권력보다 예술이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믿고, 또한 그러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시기 한국의 근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사회적·문화적 제도가 정비되는 것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예술·문학장의 문법도 확고해졌다. 이로써 현실 권력과 문학장 사이의 상징 투쟁은 전면화 되었다. 현실 권력에 대해 존재론적 우위를 갖고자 했던 문학장의 열망은 ‘신문정부’와 유사한 ‘대안적 권력’을 만들게 되었고, 70년대 이러한 대안적 권력의 상징은 백낙청과 『창비』였다.

48) 백낙청, 「시민문학론」, 96~97쪽.

제 3 절 삶의 이데올로기

백낙청의 광범위하고 야심찬 사유는 70년대 대안적 권력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그러나 그의 사유를 단지 당시 체제의 안티테제로서만 바라본다면, 그가 수행한 문학장 내·외의 투쟁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해명이 가능하지만, 그의 사유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놓치게 될 것이다. 그의 사유는 비단 독재나 분단에 대한 저항의 사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적·사회적 권력을 넘어선 ‘새로운 통합적 힘’에 대한 사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통합성을 ‘문학’에서 추구하고 ‘무제한의 개념’을 사용하여 문학에서 신앙으로 상승해가는 ‘리얼리즘론’의 사유는, 독재 정권이나 식민지 경험이 전무한 제 1세계 지식인 리비스(F.R. Leavis)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테리 이글턴은 “만일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영문학연구가 발전하게 된 데 대한 단 하나의 이유를 대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종교의 실패’라고 대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종교가 “정서적이고 경험적이며 인간주체의 가장 깊은 무의식적 뿌리”를 휘감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데올로기 통제 의 형식”이라고 밝히면서, 종교가 무너진 이후 이데올로기의 공백 상태에 “다행히도 또 하나의, 종교와 두드러지게 유사한 담론 즉 영문학이 손 가까이에 있었다”고 말한다.⁴⁹⁾ 종교처럼 정서와 경험을 통해 아주 내밀하게 작동하는 ‘문학’은 공식화된 규범이나 체계보다 훨씬 생생한 “현대를 위한 도덕적 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되었다. 이글턴은 문학이 도덕적 이데올로기로써 수행해온 “사회계급들 간의 유대, ‘더 큰 공감력’의 함양, 민족적 긍지의 고취, ‘도덕적’ 가치들의 전달” 등의 역할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실례로 리비스의 저작을 소개한다.⁵⁰⁾

리비스에 의해 1932년 출범한 비평지 『검토』는 영문학을 한갓 취미적 문화에서 “인간현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사회구성체의 정신적 본질”로 끌어올렸다. 리비스와 『검토』는 “단순히 ‘문학적’이기만 한 가치들을 거부하면서 문학작품의 평가는 역사와 사회 전체의 성격에 관한 더욱 심층적인 판단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도덕적·문화적 십자군 운동의 중심”으로서 대중 소설과 상업주의적 광고 그리고 소외된 노동에 대한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다. 그들은 기계화된 근대 사회에 대

49) 테리 이글턴,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비, 2015, 34~35쪽.

50) 같은 책, 40쪽.

응하기 위해 문학을 연구해야 한다고 믿는, ‘새로운 영문학’의 부흥자들이었다.⁵¹⁾

이런 리비스와 『검토』를 보고 60, 70년대 한국 문단의 백낙청과 『창비』를 떠올리지 않기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 백낙청의 비평을 직접 읽어보지 않는 한,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인 그가 대중문화에 대한 엘리트적·보수적인 태도를 일컫는 ‘리비스주의’의 그 리비스와 유사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의 글을 읽어본다면, 그가 한국문학을 세계문학과 연결 지어 사유하는 부분에서 세계문학에 대한 중요한 참조 지점으로 리비스를 인용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도덕적·규범적 신념과 그 신념을 담은 그릇으로서 ‘진정한 영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리비스의 문학론은, ‘진정한 문학’을 말하는 백낙청의 ‘리얼리즘론’과 놀랄 만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다.

리비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이자 개념은 바로 ‘삶’이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말이 묘한 것은, 삶이란 “느꼈으면 느낀 것이고 못 느꼈으면 못 느낀 것이지 그것에 대해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 수는 없”다는 점이다.⁵²⁾ 이렇게 직관적이며 논증과 논박이 불가능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 리비스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예는 로렌스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순환논리적 구조와 수사들로 제시될 뿐이었다. 가령 그는 로렌스를 ‘가장 대담하고 급진적인 혁신자’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 혁신이 가능한 이유로 “삶에 대한 가장 진지하고 긴박한 관심”을 꼽는다.⁵³⁾ 또 이어서 로렌스의 소설이 아닌 그의 실제 발언을 길게 인용하며, “바로 이런 정신”때문에 그가 ‘가장 창조적인 작가’라고 선언한다.⁵⁴⁾ 즉 리비스에 따르면, ‘삶’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관심은 그의 ‘창조성’을 자연스럽게 발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식의 동어반복으로는 그 무엇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본래 포괄적이고 비학문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직관적 문학론은 ‘삶’과 ‘본질’을 강조하고 전문가나 폐쇄적 학문 체계를 혐오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삶’과 ‘본질’을 구현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다. 문제는 그 평범함과 상식에 대한 애정이 결코 레토릭 수준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들이 말하는 ‘삶’과 ‘본질’에 대한 통찰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산업 자본주의의 폐해를 직시할 수 있는 ‘상식’과 ‘교양’을 갖춘 로렌스와 리비스 정도 되어야 보이는 것이기 때

51) 앞의 책, 44-47쪽.

52) 같은 책, 58쪽.

53) 프랭크 레이먼드 리비스, 김영희 역, 『영국소설의 위대한 전통』, 2007, 55쪽.

54) 같은 책, 57쪽.

문이다.

‘삶’을 향한 문학론은 자신들의 주장을 결코 특정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데올로기이지만, 자신들이 하는 말은 ‘진정한 것’이고 ‘본질’이다. 그리고 이 ‘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문학을 알 만큼 아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렇게 자신의 문학론을 ‘본질’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개별적이고 창조적인 영역이 가진 고유한 가치”에 관심을 두는 문학론에 대해 이글턴은 “딱바지에 다다른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태도”라고 평가한다.⁵⁵⁾

이처럼 이데올로기임을 거부하는 이데올로기성, ‘삶’과 같은 모호한 개념들과 직관적인 사유, ‘진정한 리얼리즘 문학’의 전범으로 자주 등장하는 로렌스에 대한 높은 평가 등은 백낙청의 글에서도 고스란히 등장한다. 실제로 백낙청은 오르테가의 「예술의 비인간화」라는 글을 근거로, ‘예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일치하지 않는 비대중적인 모더니즘 예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학을 하는 사람이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그 어느 쪽도 포기하거나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간에는 아직도 하나의 상식”이건만, “이러한 상식이 정작 문학이나 철학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쉽사리 먹혀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그 이유로 “기술화되고 분업화된 오늘의 산업사회에서 전문가의 기득권”을 꼽으며, ‘리얼리즘론’의 ‘인간적인’ 예술과 모더니즘 쪽의 ‘비인간적인’ 예술을 대립시켜 논지를 전개한다. 문학을 한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양심과 양지”에 따라 “착한 사람이 그 착한 마음에서 정녕 안하지 못하여 하는” 것이어야만 ‘문학적인 것’이자 ‘인간적인 것’일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리얼리즘론’에서 말하는 진정한 문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⁶⁾

이렇게 전문가와 학문적 개념들을 배제하는 사유 방식은, 리비스와 『검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심적 지식인’인 백낙청과 『창비』에 반박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한다. 예컨대, 우리는 백낙청의 글에서 “한국인의 소박한 상식”, “참으로 인간적인 것”, “우리 삶”, “우리 본마음”, “올바른 드러남”, “인간옹호적”이라는 모호한 말들을 고작 ‘한 문단’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⁵⁷⁾ 이렇게 비학문적이고 ‘제한’ 없는 개념들의 ‘제한’을 정할 수 있는 자는, 백낙청 스스로 말했듯이 ‘문학이나 철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일 수는 없다. 대신 제한 없는 개념들을 ‘본질’로 전유한 백낙청 자신과 ‘리얼리즘론’ 진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55) 테리 이글턴, 『문학이론입문』, 58쪽.

56) 백낙청,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105~108쪽.

57) 같은 책, 112쪽.

실제 그는 “양심의 문제를 전문적·기술적인 문제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전문 지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물론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밝히며, “전문화 자체를 거부하는 소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의 횡포로부터 양심과 양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⁵⁸⁾ 이때 ‘양심’과 ‘양지’를 담아 문학을 하는 작가들이 ‘작가의식’이 있는 작가들이고, 그런 문학을 ‘진정한 리얼리즘 문학’이라 할 수 있으며, 작가와 작품의 ‘양심’과 ‘양지’를 판별하고 ‘전문가의 횡포’로부터 지켜주며 올바른 ‘전문적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백낙청과 같은 양심적 지식인들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를 배제하되 ‘전문가의 횡포를 벗어난 지식인’의 검토를 중요시하는 백낙청의 글에는 ‘균형’에 대한 묘한 강박이 항상 존재한다. 예컨대 그는 ‘리얼리즘론’의 ‘과학정신’을 강조하며 “서양의 과학에 눌러 서양인의 과학주의에도 승복”해서는 안 되고, “반자연주의의 유혹에 끌려 과학시대의 영원한 낙오자”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⁵⁹⁾ 그렇다면 특정 작품을 ‘과학주의’가 아닌 ‘과학정신’이라고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에 대한 답은 다음 문장에 암시되어 있다. “과학이란 단순히 주관적 망상을 버리고 객관적 사실이라는 다른 차원의 허상을 취하려는 것만이 아니고, 깨달음의 눈에는 바로 진리 그것일 수도 있는 우주의 제현상을 그 자체의 구조와 법칙을 존중하여 인식하려는 구도의 자세라 부를 만 하다.”⁶⁰⁾ 결국 ‘과학정신’과 ‘과학주의’를 판별할 수 있는 자는 ‘깨달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된다.

이렇게 그의 글에서는 ‘양심적 지식인의 눈’ 외에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저울질이 시종 일관 반복된다. ‘민족정신’은 중요하지만 ‘민족주의’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고, ‘사실주의’는 중요하지만 ‘사실주의에의 정도’는 서구적 병폐와 타락이고, ‘소시민에 대한 애정’은 중요하지만 ‘소시민정신’으로 추락해서는 안 되며, ‘참여문학’은 중요하지만 ‘문학주의’는 고수되어야 한다. 하나의 태도를 선언하되 반드시 그 태도를 판별할 수 있는 사법적 기준으로 ‘진정한 태도가 아닌 것’을 뒤따라 설정하는 그의 사유 방식은, 그의 사유 전체를 일종의 ‘정신’이나 ‘구도’로 초월시켜, 그 자신 외에는 누구도 이 작품이 ‘진정한 것’이라고 선언할 수 없게 만든다.

마치 ‘리얼리즘론’에서 작가가 작품 밖에 서 있듯이, 백낙청과 ‘양심적 지식인들’은 세계의 바깥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완전한 세계’와 ‘완전한 작품’이 모두 존

58) 백낙청, 앞의 책, 108쪽.

59) 백낙청, 『민족문학의 새로운 고비를 맞아』, 87~88쪽.

60) 백낙청, 『인간해방과 민족문화운동』,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545쪽.

재한다. 단지 지금 상실되었거나 혹은 미완의 상태인 것뿐이다. 그것을 채우고 식별하는 것이 문학과 지식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삶의 본질’을 판정하고 확보하려는 사유는 근본적으로 세계를 하나의 작품처럼 바라볼 때 생겨난다. 세계의 바깥에서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자만이, 세계를 사유할 때 사유의 범위에서 자신을 제외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특권자는 자신의 관념을 생생한 ‘본질’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생생한 ‘삶’과 인간적인 ‘상식’에 집중하는 말들은 그 생생함과 현실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추상화되어 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구체성을 강조하는 추상성’은 백낙청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가 잘 사용하는 ‘삶’, ‘사랑’, ‘인간’, ‘양심’ 등의 관념들은 결국 ‘상식’을 선취한 ‘교양’ 있는 지식인 계급의 형이상학을 위해 복무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념들은 일종의 형이상학인데, 그것도 형이상학을 거부하는 형이상학자가 자신의 좌표를 역사화·상대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어서, 오직 그 형이상학자만이 ‘심급’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치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성에 눈감음으로써 진보로 출발하여 보수로 변해가듯이, 백낙청의 ‘진정함’과 ‘건강함’에 대한 사유는 원래의 의도와 달리 모든 합리적 공격을 피해 들어가 될 수 있는 ‘직관적 권위’로 귀결되기 쉽다.

앞서 인용했듯이, 그는 ‘지혜의 위계질서’가 있어, 본인을 비롯한 지도적 지식인들이 일반 대중들보다 위계질서의 상층부를 차지한다고 믿었다. 아마 ‘직관적 권위’의 백낙청식 표현은 ‘지혜’일 것이다. 이 ‘지혜’라는 것은, 근대 서구의 과학적 성취는 따라잡되 과학주의의 폐단은 극복하자는, 이중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과학을 초월한 ‘지혜’란, ‘중용’이나 ‘균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일종의 ‘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덕인 ‘지혜’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아마도 각자의 ‘마음’일 것이다. 평소 백낙청이 지닌, 누구나 보편적인 인간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나, 지혜에는 위계질서가 있다는 신념에 비춰 볼 때, 위계는 낮을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속에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백낙청의 엘리트주의를 넘어선 ‘정치적 이데올로기’ 역시 짐작해볼 수 있다.

각자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마음’들이 사회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음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 밖에 없다. 각 개인들은 자신의 마음과 지혜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을 할 것이다. 더 높은 수준의 지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 복종’에 의한 조연 수준이지, 안정적인 ‘균형’ 상태의 규범이 될 순 없다. 결국 백낙청의 사유에서 개인적·사회적 차원을 모두 관통하는 ‘지혜’나 ‘인간 본연의 마음’의 세

계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그 제도적 표현으로서의 입헌민주제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백낙청이 ‘리얼리즘론’을 통해 “문학의 정치성을 다루는 방식은 제도(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⁶¹⁾ 결국 ‘삶’과 같은 형이상학에 기대어 있는 ‘리얼리즘론’은, 리비스가 서있는 엘리트적·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처럼 리비스와 백낙청은 사회적·정치적 경험이 다른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한 구조의 문학론을 갖는다. 백낙청에게 삶이나 본질에 대한 가치는 자신의 ‘양심’과 ‘지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무엇이든 공유되는 기준을 댈 수는 없지만 자신은 세계의 바깥과 작품의 바깥에서 그것을 판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세계의 중심에는 관조적인 개인적 자아가 있어서 책 위에 고개를 들이밀고는 경험·진리·현실·역사·전통과 접촉한다고 가정”했던 문학자들은 “사회적 소유에 집착하는 개인주의라고 불리는 것에 진저리를 치지만 바로 그만큼 문학적 영역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개인주의에 상응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복잡하게 매개된 작품과 세계의 관계를 단순히 ‘치열한 작가의식의 일’, ‘계몽된 독자의 일’로 치부하고, “인간 생활의 사회적 성격을 고독한 개인의 일로 돌려버리는 정치체제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⁶²⁾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이 지닌 명백한 한계에 있다.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이 강조해온 많은 것들이 더 나은 세계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무기력한 양심으로 축소”⁶³⁾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그 ‘양심’이 양심을 특권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에는, 단순한 무기력을 넘어서 강력한 보수성을 드러내게 된다. 실제로 기존 문학장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외부의 출현이나, 기존 문학장에서 인정되던 ‘직관적 권위’에 대한 근본적 도전은 백낙청을 민중의 수호자에서 문학장의 수호자로 변모시키기도 했다.

‘창비’와 ‘문지’로 대표되는 ‘양대 계간지 시대’를 지나 80년대 다양한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크지 발행 운동이 출현하자, 백낙청은 노골적인 언사로 기존 문학장을 수호한다. 그는 무크지 운동의 의의를 설명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칫 암흑기로 떨어질 뻔했던 하나의 고비를 넘기는 데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아야지, 무크와 같은

61) 류준필, 「백낙청의 리얼리즘론의 문제성과 현재성」, 『창작과 비평』 Vol.38 No.3, 2010, 389~390쪽.
 62) 테리 이글턴, 『문학이론입문』, 242~243쪽.
 63) 같은 책, 245쪽.

일종의 변칙적 출판활동이 이 땅의 문학운동을 계속 주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략) 조만간에 기존 잡지들의 각성과 새로운 정기간행물들의 등장으로 무크지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80년대 초의 무크운동은 실패한 운동이 될 것”⁶⁴⁾이라고 평가한다. 『창비』와 같은 ‘기존’ 잡지를 각성시킬 정도로 끝나지 않고 기존 문학장 자체를 침범한다면 무크 운동은 오히려 실패라는 것이다. ‘기존’ 잡지나 새로운 ‘정기’ 간행물이 아닌 이상, 스스로 소멸하는 것이 그 운동의 목적이란 그의 말은, 기존 문학장과 문학제도를 중심으로만 ‘참여문학’과 ‘문학주의’를 구사해온 그의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정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평가는 노동자 문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80년대 노동자 수기와 노동자 시집들이 대거 등장하며, 지식인 계급이 쓴 ‘민중적 문학’보다 민중 계급의 ‘민중 문학’이 주목받는 상황에 이르자, 백낙청은 “집필자의 신원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작품을 저자 개인의 제품으로 보는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일 뿐이고, “집필자의 전문성은 한편으로는 그 집필자를 민중으로부터 유리시키는 속성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생산에 반드시 있게 마련인 민중과의 의식적·무의식적 협동을 극대화하는 집필자의 기술”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⁵⁾ 그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지닌 집필자, 즉 기존 문학인이자, 실제 민중계급이라는 집필자의 ‘신원’이 아닌 것이다.

또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에 쏟아지는 사회적·문학적 관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노동자만이 쓸 수 있는 훌륭한 시들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라는 장르적 특성을 잘 살렸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고, 그리고 한국 시를 어느 정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박노해의 이런 시가 나오기까지 가령 김수영이라든가 신경림, 김지하 등 기성문인들의 작업이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역시 기성문인들이 너무 쉽사리 손을 들어버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⁶⁶⁾ 그는 문학장 바깥에 존재하는 박노해를 인정하기 위해, 자신의 문학장 울타리를 수정하지 않는다. 대신 박노해를 김수영, 김지하 등 기존 ‘리얼리즘론’ 전통 내에 끌어들이기 기존 문학장 안으로 포섭해버린다.⁶⁷⁾

64) 백낙청, 「1983년의 무크운동」,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108쪽.

65) 백낙청,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347쪽.

66) 같은 책, 346쪽.

67) 이와 유사한 논지는 김형중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형중은 무크지 운동과 박노해 시에 대한 백낙청의 견해를 인용하며, 백낙청이 랑시에르가 ‘정치’와 구분해 ‘치안’이라고 부른 “현행의 나눔”을 수호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응답하라, 1983 - 박노해, 황지우, 백낙청의 시대」, 『문학과사회 하이픈』, 2017년 봄호, 160~172쪽.

이렇게 문학이라는 초월적 관념과 비평가의 권위에 근거하여 기존의 문학 장을 강력히 수호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는, 심지어 민중들에게 시를 쓰도록 했을 때 민중이 얼마나 고생스러워할지 염려하는 논리로까지 나아간다. 그는 “평등사회라고 해서 만인이 똑같이 훌륭한 시인이 되고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관념적인 평등주의”라고 전제하며, “오히려 엄연히 존재하는 우열이 부당하게 흐려지는 것이 불평등사회의 특징이며, 굳이 시를 안 써도 좋을 사람이 시인이 되어 자해·해타의 길을 걷게 하고 도저히 시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시를 쓰고 싶은 허욕을 심어주어 일생을 괴로이 보내게끔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민중운동에 뜻을 둔 문인들은 어떻게 해서 진정으로 탁월한 작가가 되고 남보다 나은 평론가·독자가 될까를 고뇌할지언정 문인집단의 소수성, 거기서 요구되는 예술적 탁월성 그 자체를 죄스러워할 까닭은 없다”고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지식인은 지식인의 자리에서, 문학인은 문학인의 자리에서, 민중은 민중의 자리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 문학인이 민중을 ‘위해’ 시를 써줄 수는 있지만, 민중이 직접 자신의 시를 쓰는 것은 자칫 ‘허욕’이 되고 ‘자해’가 되는 것이다.⁶⁸⁾

그의 ‘민중성’은 결코 민중 스스로 발화하는 것이 아닌, 문학장 내의 기존 작가가 ‘리얼리즘론’의 기준에 맞게 그려내야 하는 재현의 대상이었다. 그가 열망하는 것은 결코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실제 ‘민중’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머를 바라보는 자에게 재현의 대상이 ‘민중’이든 ‘삶’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지금 눈앞의 ‘민중’과 ‘삶’은 그 너머로 가기 위한 재현적 대상일 뿐이다. 문제는 그 재현을 ‘누가’ 하는가, 그리고 그 재현의 방식에 있어서 정해진 문학장의 내적 논리는 무엇이고, 그 논리를 ‘누가’ 수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무리 ‘민중의 건강성’과 ‘민중에 대한 신뢰’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재현의 대상으로 삼고 그 재현 방식을 제어하는 특권적 ‘양심과 양지’를 전유하려는 이와 같은 태도를 결코 민중적인 태도라고 부를 순 없을 것이다.

결국 백낙청의 문학론의 형식은 민중적이라기보다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에 가깝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역사적·정치적 맥락에 무관하고, 종교나 기존 체제에 물들지 않았으며, 자신만은 매개 없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것’을 향한 열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이 아니고도, ‘시민/민족/민중’이 아니고도, ‘리얼리즘론’에 담긴 ‘진정한 것’에 대한 열망은 발현될 수 있었다. 80년대 무크지

68) 백낙청, 「민족문학의 민중성과 예술성」, 『민족문학의 새단계』, 창비, 1990, 62쪽.

운동이나 노동자 문학을 평가하는 글에서나, 최인훈·김승옥·서정인에 대한 비평에서 보듯이, 그는 현상을 맞이하여 섬세하게 읽어내고 가능성을 찾아내기보다, 먼저 크게 부정하고 다시 한 번 그 나머를 지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눈앞의 현실에서보다 그 나머의 ‘진정한 것’을 원하는 그런 열망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20세기 근대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환희와 좌절의 궤도들을 어지럽게 그려낸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리얼리즘론’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그 ‘진정한 것’을 향한 열망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지, 또한 그 열망이 가닿는 곤경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제 3 장 ‘리얼리즘론’과 우울증적 주체

제 1 절 ‘진정한 것’을 향한 열망

1. 세기의 열정

바디우는 20세기를 정리하면서, 20세기 초반 격정적이었던 정치적 혁명들과 예술적 아방가르드 모두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열망에서 유래한 ‘세기의 열정’이었다고 말한다.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해내겠다는 이러한 열망들은 궁극적인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세기의 강박관념’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세기의 열정’은 자신의 투쟁을 ‘궁극적인 투쟁’으로 여기며 기존의 것과 단절을 꾀했고, 그 결과 20세기는 모든 방면에서 극심한 폭력과 변혁을 가져왔다. 예컨대 20세기의 예술적 성과 중 하나인 추상화는 구상적인 자연과 인간에 대한 가혹한 미학적 폭력으로서야 등장할 수 있었고, 성공한 혁명인 러시아 혁명은 엄청난 희생과 숙청을 감수하면서도 황홀경 속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⁶⁹⁾

그는 이 열정을 그저 이데올로기적 차원이 아닌, ‘새로운 역사성’으로의 매혹이라 설명하며, 그 매혹을 “실재에 대한 열정”으로 부르길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이 ‘세기의 주체’들은 “시작이라고 하는 실재의 순간에 존재”했고, “시작이라고 하는 시대에 소환되었다는 감동적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실재가 아닌 것’들에게 무관심하게 잔인할 수 있었다. 즉 ‘실재에 대한 열정’에는 필연적으로 공포와 폭력성까지 실재의 일부로서 들어오는 것이었다.⁷⁰⁾ 20세기의 빛나는 예술적 성과와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정치적 폭력을 분리해서 사유하려는 흐름에 대해, 바디우는 “철학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기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세기 속에서 사유되었던 것”이라 말하며, 이 모든 것은 “과학적, 예술적, 성적 단절과 동일한 주체적 어조를 역사와 국가의 질서 속에서 주장하는 단절의 계획, 세움의 계획”이었고, ‘세기’는 자신의 사유와 계획에 “무자비하게 충실했다”고 주장한다. 양자는 똑같이 ‘실재에 대한 열정’이었다는 말이다.⁷¹⁾

바디우는 헤겔의 논지를 빌려, 프랑스 혁명이 왜 ‘테러리스트적 혁명’이 되었는지 설

69) 알랭 바디우, 박정태 역, 『세기』, 이학사, 2014, 74~77쪽.

70) 같은 책, 68~69쪽.

71) 같은 책, 14쪽, 24쪽.

명한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은 “절대적 자유의 주체적 형상을 제시”했는데, ‘절대적 자유’란 기존의 관습이나 외부의 규범과 무관한 “규준이 없는 자유, 아무것도 그 유효성을 증명할 수 없는 자유”일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합의나 규준도 불가능한, 이러한 ‘진정한 자유’는 그저 ‘좋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제 ‘자유’는 공적인 담론 하에 합의된 상태를 이르는 말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좋은 ‘덕’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단 무엇인가가 ‘덕’이 되어버리면 그에 대해 공유된 규준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덕’은 덕과 반대되는 ‘부패’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 즉 ‘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덕’의 본질이 아닌, ‘덕’으로부터 ‘덕이 아닌 것들’을 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실재적 자유의 본질은 부패에 맞선 투쟁”이 되어버리고 “부패는 사물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제 잠재적으로 이 부패에 맞선 투쟁의 표적”이 된다. 이제 만인이 부패에 대한 ‘용의자’가 된 상태에서, “자유는 용의자에 대한 법으로서, 만성적인 정화 작업으로서 대단히 논리적으로 실행”되게 된다.⁷²⁾

우리는 여기서 바디우가 설명하는 세기의 열정이 백낙청의 사유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바디우가 말하는 ‘새로운 인간의 창조’와 그를 둘러싼 ‘궁극적인 투쟁’은 백낙청의 글에서도 정확히 반복된다. 가령 백낙청이 강조하는 ‘민중’은 계급적 의미의 민중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민중’은 주어진 거짓 틀을 부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민중이다. 그는 ‘민중’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글에서 무엇보다 민중의 ‘복수심’에 대해 강조한다. 그는 “민중의 이기심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수의지도 역사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해왔음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 주장하며, “악에 대한 응징이 없이 정의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악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악에 대한 응징조차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정의를 실현하고 악인에 대한 증오로부터 해탈하는 데에 참뜻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지만, ‘악’에 대항하는 ‘민중’의 투쟁을 선명하게 실천해야만 “정의와 사랑을 두루 갖춘 새로운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고 밝힌다.⁷³⁾

이렇게 기존의 ‘악’과 새롭게 창조된 인간인 ‘민중’의 궁극적 투쟁을 주장하는 백낙청의 글은, 20세기가 공유하는 법칙이 ‘하나’도 ‘다수’도 아닌 ‘둘’이라는 바디우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한다. 바디우에 따르면, “둘을 발명하는 인간의 능력은 탁월”⁷⁴⁾하기에 새로

72) 앞의 책, 106~107쪽.

73) 백낙청, 「민중은 누구인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567~568쪽.

74) 알랭 바디우, 『세기』, 76~77쪽.

운 실재와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는 확신과 열정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적대’를 낳게 된다. 그 적대는 기존의 인간과 새로운 인간으로, 악과 민중으로, 부정의와 정의로 계속되어 변주해가지만, 결국 ‘진정하지 않은 것’과 ‘진정한 것’의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민중과 ‘진정한 문학’을 위해 ‘정화’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백낙청의 사회적 이상형인 프랑스 혁명을 테러리즘으로 얼룩지게 만든 ‘정화’의 논리는 ‘진정한 문학’을 향한 그의 구도 길에 왜 ‘미치지 못한 것’들만 많았는지 설명해 준다. 합의나 규준이 불가능한 ‘진정한 자유’가 자유의 ‘적’들만 적발하게 되는 것처럼, 백낙청이 추구하는 ‘진정한 문학’은 진정하지 않은 문학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버린다. “종래의 인간개념과 인간현실에 근본적으로 도전함으로써 인간본연의 모습을 되찾아내는 참다운 인간회복의 길”⁷⁵⁾인 ‘진정한 문학’을 찾아내는 것은, 그 ‘본연’과 ‘참다운’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애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본래 ‘진정한 것’을 향한 열망은 어떤 것의 ‘진정함’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혹”⁷⁶⁾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만이 ‘진정한 것’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담긴 ‘진정한 것’을 밝혀내기 위한 방법으로 늘 ‘미치지 못한 것들’과 ‘부패한 것들’만 지목하고 축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정하지 않은 것들을 배제하는 정화 작업은 “성취가 불가능한 과정, 나쁜 무한의 형상”이며 “필연적 귀결로서 무를 도래”하게 한다.⁷⁷⁾ 우리는 이 같은 악무한을 무수한 ‘선언문’과 ‘혁명’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빛나는 열정과 믿음만큼이나 그들의 언어는 배제의 언어였다. 그리고 ‘리얼리즘론’ 역시, ‘진정한 문학’을 갖기 위해 궁극의 투쟁을 벌였고, 그 투쟁의 과정에서 모든 오염을 배제하는 ‘정화’의 악무한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리얼리즘론’을 주장한 백낙청의 이름에 걸맞는 ‘리얼리즘’ 소설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2. 진정성의 시대

‘세기의 열정’이 지배했던 20세기는 ‘진정성의 시대’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진정성’

75) 백낙청, 「예술의 민주화와 인간회복의 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356쪽.

76) 알랭 바디우, 『세기』, 104쪽.

77) 같은 책, 111쪽.

이란, “본래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가치의 체계이자 도덕적 이상으로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미덕으로 삼는 태도”를 말한다. 그런데 자아의 실현이라는 것이, “대개 사회적 모순, 억압, 문제 등에 의해 좌절되기 때문에 진정성의 추구에는 언제나 사회의 공적 문제에 대한 격렬한 항의, 비판, 참여가 동반”되게 되고, ‘진정성’은 전근대의 도덕적 가치인 고결한 ‘신실성’과 대조되는 근대적 주체의 ‘분열된 감수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내면과 외면의 모순을 동반하지 않고 주어진 의미와 규범을 준수하는 전근대의 신실하고 우아한 영혼과 달리, ‘진정성의 주체’는 주어진 규범을 자신의 내면에서 반성하고, 필요하다면 자기 내면의 도덕과 모순되는 외부를 향해 대립을 불사할 수 있는 “불행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행한 의식’들의 자기실현 세계에 대해, 헤겔은 “소외된 영혼의 세계”이자 근대적 교양의 영역인 부르주아 시민사회”라 말한다. “개인은 이제 교양 혹은 문화의 영역을 통과하면서, 상실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찾아야한다. 그것이 바로 소설의 이념이며, 모더니티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는 정신적 가치인 진정성의 이상”이라는 것이다.⁷⁸⁾

이에 대해 김홍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체제 이전까지가 ‘진정성의 시대’였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 시대를 가장 잘 구현한 집단적 주체들이 바로 ‘386 세대’였다고 말한다. 386 세대는 엄혹한 시대를 통과하고서도 자신들이 생존해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부채감을 가져왔고, 자신들의 나침반 역할을 한 열사들의 죽음 앞에서 도덕적 압력을 받으며 살아왔다. 386세대로 대표되는 ‘진정성의 주체’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회변혁에 “투신한 운동가들의 행위는 모방되거나, 추종되거나, 추앙되어야하는 ‘전형’의 의미를 띠게 되며, 주체는 이 전형이 행사하는 도덕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진정성을 향해 정향할 수 있는 규범적 나침반을 발견”할 수 있었다.⁷⁹⁾

이 같은 설명에서 우리는 386세대의 내면적 장치와 더불어, 백낙청과 ‘리얼리즘론’의 그것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리얼리즘론’이 왜 그토록 작가의 사회 참여를 주장했는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왜 그토록 치열한 작가의식을 요구했는지는, ‘진정성의 주체’인 백낙청이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진정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작가는 ‘진정성의 주체’이다. 진정성의 주체에게는 항상 모순으로 가득 찬 지금의 현실과 ‘진정한 현실’이라고 부를 만한 내면의 이상 사이에 넓고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진정성의 주체가 쓴 소설은 그 간극 사이의 대화일 수밖에 없다. 외면에 대한 내면의 반성으로 구축되는 대화 공간인 소설이 외면에

78)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5, 19~28쪽.

79) 같은 책, 34쪽.

대한 묘사만으로 혹은 내면에 대한 몽상만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설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작가의 치열한 작가의식은 작품을 관통하고 작품성을 좌지우지하는 동시에, 작가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내면의 소리에 따라 자신을 희생했던 ‘진형’들을 소설의 세계에서마저 몰락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듯 진정성의 주체에게 아름다움과 도덕적 가치는 하나로 통일된다. 이것이 ‘진정성’ 혹은 ‘실재에 대한 열정’의 윤리와 힘이자 폭력이다. 만약 어떤 작품의 아름다움과 도덕적 가치가 일치될 수 있다면, 그 작품은 ‘진정한 작품’ 즉 ‘진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품은 언제나 하나이듯이, 진정한 삶의 형식 또한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통념, 일종의 ‘유일성의 신화’는 바로 여기에 발생한다.” 그러나 “무엇이 진품 즉 진정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진정성은 실증의 대상이 아니라 주장의 대상이 되며, 과잉이 아닌 결여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진정성은 언제나 타인에게 부족한 것이자,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 주장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⁸⁰⁾

이 같은 설명은 헤겔의 ‘정화의 악무한’에 대한 설명과도 정확히 부합한다. 오로지 하나일 수밖에 없는 통합적인 ‘진품’에 대한 이상을 지닌 ‘진정성의 주체’에게 거대한 부정성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미치지 못한 것들, 진정하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야만 나의 ‘진정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정하지 않은 것들을 배제하는 과정이고, 그것의 객관적인 기준은 없기에, 진정성의 주체인 백낙청의 비평은 항상 ‘미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누군가의 머릿속에 ‘진정한 것’들이 다양하게 가득 차 시끄럽게 와글거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진정성의 주체’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리얼리즘론’에서 요구하는 내면의 치열한 자기의식과 각성된 사회적·공공적 의식,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예술적 가치라는 거대한 통합적 사유는 좀처럼 완성해내기 어려운 것이다. 창작 과정에서 이 어려움을 직면하려 하면 ‘불행한 의식’의 주체는 분열을 야기하여 ‘진정한 것’에서 멀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응시하면 ‘치열한 작가의식’의 부족과 대중적 영합이라는 의혹으로 ‘진정한 것’에서 멀어질 것이다. 내면과 외면 사이의 모순을 소설 속에서나마 반성적으로 통합하려는 백낙청과 ‘리얼리즘론’의 통합적 욕망은, 역으로 ‘진정한 것’이 없다는 근본적 회의감과 그래도

80) 앞의 책, 35~36쪽.

‘진정한 것’을 찾아야한다는 당위성 사이에서 좀처럼 화해하기 어려운 망설임을 동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리얼리즘론’의 창작적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모더니티의 구원

끝없는 부정성 속의 망설임과 유사한 것을, 우리는 마셜 버만이 분석한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 가운데 ‘리얼리즘’ 진영의 주장 역할을 한 백낙청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역시 예술적 모더니스트들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견고한 역사철학의 지평에 서있는 거인이다. 그러나 마셜 버만은 이런 마르크스에게서 묘한 긴장을 포착해내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모더니티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고한 비전’과 ‘녹아버리는 비전’의 긴장”⁸¹⁾이라 할 수 있다.

이 긴장은 부르주아 계층의 혁명적 역할에 대한 마르크스의 찬양으로 시작한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계층이 이룩해 낸 수많은 프로젝트와 건설들에 대해, 전시대의 귀족들과 달리 “인간의 행위가 무엇을 야기할 수 있는지 맨 처음으로 보여주었다”고 높이 평가한다. 그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모든 양식에서 발전을 위해서, 영원한 변화를 위해서, 영원한 변동과 개선을 위해서, 인간의 능력과 추진력을 자유롭게” 사용한 부르주아의 ‘행동 자체의 힘’에 대해 매우 찬양한다. 다만 현재의 부르주아는 그 ‘영원한 개혁’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부르주아 니힐리즘’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에 따르면, 결국 “부르주아 발전의 내적인 삶과 에너지는 그러한 발전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했던 계층을 휩쓸어 버리”는 아이러니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해 ‘부르주아적 가치’가 부르주아 사회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게 되면, 그 가치는 모든 계층에 의해 자유롭게 뺏어 나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마르크스의 주장이다.⁸²⁾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이 강력한 ‘변증법적 운동’은, 마치 백낙청이 근대를 이룩하고 동시에 근대를 극복하길 원하는 것처럼, 더 훌륭한 모더니티로 기존의 모더니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마르크스는 결코 기존의 종교적이고 계급적인 공동체를 벗어나 홀로 서있길 바라지 않았다. 그는 노동조합과 같은 새로운 공동체를 꾸리기를, 그래서

81) 마셜 버만, 윤호병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2011, 139쪽.

82) 같은 책, 142~150쪽.

“일종의 투명한 복장”을 갖길 원했다. 그에게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투명한 복장’은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그러한 복장을 벗어버린 발가벗은 아름다움도 유지하는 그러한 복장”인 것이었다.⁸³⁾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 버리는’ 모더니티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민한 감각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이 녹아 버리는 가운데 굳건히 존재할 어떤 것을 열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역설과 긴장은 근대에 대한 “비판적 통찰력과 그의 급진적인 희망 사이에 존재”⁸⁴⁾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적 긴장은 백낙청이 말하는 ‘시민다움’과도 유사하다. 백낙청은 ‘시민문학론’에서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정의롭고 강인한 새로운 ‘공동체’를 열망한다. 흡사 ‘투명한 복장’과 같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백낙청의 열망은 로렌스를 분석하는 글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그는 미국 문학을 소개하는 글에서 로렌스의 “인간은 생명 있는 조국 땅에 있을 때 자유롭지, 도망가고 떠돌아다닐 때 자유로운 게 아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믿음에서 오는 어떤 깊숙한 내면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을 때 자유롭다.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순종하고 있을 때에. 인간은 생명 있고 유기적이며 신념을 가진 공동체에 소속하여 어떤 이룩되지 않은, 어쩌면 인식되지도 않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을 때 자유로운 것”⁸⁵⁾이라는 글을 길게 인용하고 승인한다. 백낙청에게 ‘자유’란 내면의 반성에 귀 기울여 새롭고 ‘진정한’ 공동체를 건설할 때 따라오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와 백낙청은 견고한 모든 것이 흘러내리는 모더니티에 대한 감각 속에서, 그 감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토피아적 사유를 근미래에 묶어두었다. 이들에게 유토피아란 모더니티에 ‘대한’ 구원인 동시에, 모더니티에 ‘의한’ 구원이었다. 그 구원은 아마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흘러내리는 현실을 받쳐주는 기둥이 되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어쩌면 ‘불가능’ 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불안’이다. 이들은 불안한 공허의 자리에 불가능하더라도 단단한 무언가를 세우고 싶었다. 그렇다면 이제, 비록 말뚝이 박힌 자리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부단히 말뚝의 의미를 고민하고 선언하고 싸워왔던 이들에게 ‘우울증적 주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자 한다.

83) 앞의 책, 167쪽.

84) 같은 책, 182쪽.

85) 백낙청, 「미국의 꿈과 미국문학의 짐」,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214쪽.

제 2 절 우울증적 주체의 열망

1. 우울증적 주체의 야망

백낙청을 비롯한 당대의 문학 담론들은 모두 ‘민족’이나 ‘민족 국가’를 단위로 삼은 ‘부재’의 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식민지와 분단의 경험 속에서 “왜곡과 파행 이전부터, 그리고 왜곡과 파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어떤 것을 실체화하고자 하는 충동”은 일견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특히 결핍과 부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학을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백낙청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했다. 그가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분단 모순’이라고 단언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결핍되고 부재한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부재’가 “충족된 상태의 부재인 동시에 형이상학적으로 상승되어 실제 역사적 과정에서 부재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부재”라는 점이다.⁸⁶⁾

전자의 ‘충족된 상태의 부재’는 더욱 정진해서 이룩해야 할 ‘결여’의 상태나 되찾아와야 할 ‘상실’의 상태로 표현될 수 있다. 예컨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나 다소 미흡했던 4·19혁명이 그러한 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형이상학적으로 상승된 부재’는 실례로서 설명될 수 없다. 후자의 부재는 단지 ‘시민’ ‘민족’ ‘민족국가’ 등을 넘어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사유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백낙청의 부재는 사회적 환경을 초월한, 근대에 뿌리 깊게 내린 ‘진정한 것’을 향한, 보다 근본적인 열망이었고 열망의 내용은 다르더라도 같은 형식의 ‘상상력’을 지닌 많은 이들이 그 시기 존재했었다. 이 열망을 지닌 주체들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다른 것을 끝없이 배제해야 하는 외로운 길을 걷더라도, 그 열망이 제공하는 강력한 동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리얼리즘론’을 사로잡은, 지금은 고되더라도 ‘진정한 것’을 찾기만 하면 복된 세계를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상상력은 어쩌면 ‘우울증적’ 상상력일지도 모른다.

「슬픔과 우울증」에서 프로이트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애도(슬픔)와 우울증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애도는 사랑하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대상에게 향했던 리비도를 철회하려는 현실 인식과, 그것을 거부하려는 반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다. 살아야 한다는 현실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많은 눈

86) 차승기, 「민족주의, 문학사, 그리고 강요된 화해」, 62쪽.

물과 시간을 흘리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실을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상실된 대상을 향하던 리비도는 철회되어 다른 대상에게 향하고, 애도는 비로소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우울증은 이와 다르다. 무엇보다 우울증은 “상실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대상의 ‘어떤 것’을 상실했는지는 모르는 경우, ‘무의식’ 차원의 상실감으로부터 우울증이 발생한다. 이러한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교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자애심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우울증자 스스로가 처벌받기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우울증자는 대상을 잃어버린 것을 자책하며 스스로 피학적인 대상이 되고자 한다.⁸⁷⁾

그런데 프로이트는 여기서 묘한 모순을 발견해낸다. 그것은 우울증 환자가 “대상과 관련된 상실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자아와 관련된 상실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환자의 말을 잘 들어보면 환자가 내뱉는 자기 비난의 말들이 실제로는 자신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나 주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로이트는 우울증이란, 대상을 향한 리비도가 애도처럼 다른 대상을 찾아가지 못하고, 자아 속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퇴행이라고 분석한다. 우울증의 특성 일부는 “슬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나르시시즘적 대상 선택이 나르시시즘으로 퇴행하는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울증자의 나르시시즘적 자기 비난이 결국은 ‘사랑의 대상’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몸짓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⁸⁸⁾

그렇다면 ‘우울증적 주체’란, 무엇을 상실했는지 알 수 없어 그 상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갈 곳 잃은 리비도를 자기 안에 투사해서 자기를 처벌함과 동시에 대상에 대한 애증 역시 유지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적 주체에 대해 이번엔 아감벤이 매우 흥미로운 ‘역설’을 소개한다. 아감벤에 따르면 “우울증은 사랑하는 대상의 사라짐에 대한 거부반응으로서의 철회라기보다는 차라리 가질 수 없는 대상을 마치 잃어버린 대상으로 보이게 하는 상상력”이다. 다시 말해, 대상 상실을 인정하는 애도와 달리, 우울증은 “대상을 애도의 비애적인 표현으로 감싸면서” 그 대상에게 “잃어버린

87)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외 역,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2, 245~247쪽.

88) 같은 책, 249~254쪽.

물건이라는 가상현실"을 부여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울증의 전략은 허구적인 것의 존재를 위해 공간"을 만듦으로써 "어떤 '소유'도 경쟁할 수 없고 어떤 '상실'도 위협할 수 없는 '점유'를 시도"하고, 그럼으로써 대상을 절대적으로 소유하려는 몸짓인 셈이다.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대상의 '결여'는 '상실'로 치환되어, 역설적으로 대상은 과거에 소유했거나 미래에 소유할 어떤 것이 된다. 이렇게 결여를 상실로 치환하여 전유하는 우울증자의 '전략'을, 아감벤은 '우울증의 야망'이라 일컫는다.⁸⁹⁾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 문제와 진정한 현실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지닌 '진정한 것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도 '우울증의 야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것'은 본래 실체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애초부터 결여인 것을 상실한 것인 양 우울해함으로써 그 결여를 소유하는 이 전략은, 우울증적 주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인 우리의 일상적 현실을 넘어서는 또 다른 절대적 현실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열망"을 간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발생한다.⁹⁰⁾ 절대적 세계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일상적 현실을 넘어서 '진정한 세계'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 '진정한 세계'를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세계'를 상실해버린 우울증적 주체들은 늘 그것을 찾는, 그러나 항상 '진정하지 못한 것'들만 발견될 뿐인 길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된다.

2. '리얼리즘론'의 왜상적 대상

눈앞에 펼쳐진 현실 대신 '진정한 현실'을 찾아 헤매는 '리얼리즘론'의 논리에 이 설명은 그대로 적용된다. '리얼리즘론'의 주체는 애초부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그것을 마치 소유했었던 것 마냥 찾아 나선다. 물론 '리얼리즘론'은 결여를 결여 자체로 인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하기도 한다. 예컨대, '시민문학론'은 '시민다운 시민'을 "우리가 쟁취하고 창조하여야 할 미지·미완의 인간상"으로 설명하면서 그 결여를 끝없이 갈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뒤이어 그 '시민다운 시민'이 역사상 유일하게 실존했던 예로 프랑스 혁명을 들면서, 그 시기를 "시민계급의 가장 시민다운 모습"이 존재했던 "시민계급의 영웅적인 시대"라고 평가하는 걸 보면,

89) 조르조 아감벤, 윤병연 역, 『행간』, 자음과 모음, 2015, 58~59쪽.

90) 슬라보예 지젝, 한보희 역, 「우울증과 행동」, 『전체주의가 어땠다구?』, 새물결, 2008, 222쪽.

그것은 절대 결여를 결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⁹¹⁾ 물론 그는 프랑스 혁명의 ‘시민다움’이 부르주아의 시민 의식 퇴조로 인해 ‘소시민’ 시대로 전락했다고 한계를 밝히지만, 그 평가에 의하더라도 ‘시민다움’이란 과거에 짧게나마 만개한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다만 지금은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것, 그러나 언젠가 우리 민족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다운 시민’을 ‘미지·미완의 인간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실은 결여를 결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본질’을 찾아내어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의 넉넉함’이나 ‘건강한 민중성’ 등 ‘리얼리즘론’의 핵심적 이상과 관념들은 과거에 당연히 존재했던 듯이 호명된다. 이렇게 재구성된 ‘전통’을 위해 과거를 호명하는 단선적·진보적 역사관은 ‘미지·미완의 인간상’ 역시 근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릴 ‘실체’로 인식하게 만든다. 과거에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졌지만, 미래에 다시 존재할 이 ‘시민다운 시민’은 과거로부터 또한 미래로부터의 상실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그것을 잃었다고 인지할 때 그 무언가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 즉, “상실 속에서 대상은 오히려 과잉 현존 하게 된다. 우울증적 동일시란 바로 이런 것”⁹²⁾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것’에 대한 열망이 우울증적 주체의 야망으로 넘어가는 지점, 백낙청은 정확히 거기에 서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의 ‘리얼리즘론’도 결여를 상실로 치환한 우울증의 전략인 셈이다. 그렇다면 ‘시민문학론’의 유토피아적 미래인 ‘사랑을 시민의식의 정확한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날’ 역시 ‘진정한 것’을 찾아 해매는 ‘리얼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의무, 혹은 책략이다. ‘진정한 것’은 상실해야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서, 마지노선을 영원히 불가능할 날로 상정해두어야만 상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무여서 지난한 것이지만, 또한 책략이어서 소유를 보장해준다.

이렇게 우울증적 주체가 결여의 자리를 대신하여 넣어 둔 것을, 우울증적 주체의 세계를 지탱하고 구축하는 ‘리얼리티’라 부른다면, 그것은 결코 실체일 수 없지만, 우울증적 주체에게는 실체로서 상정된다. 그것이 ‘리얼리즘론’의 ‘리얼리티’인 것이다. ‘리얼리즘론’은 공허의 자리를 차지한 리얼리티를, 지금은 없지만 곧 도래할 ‘진정한 것’이라 부르며 단단하게 응집할 수 있다. 이렇게 ‘현실’이라는 이름의 건축물을 견고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그 중심의 공허의 자리를 차지한 대상에 대해 지젝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자 ‘왜상적 대상’이라 부른다. 모든 이데올로기가 그렇듯, 중심을

91) 백낙청, 「시민문학론」, 24쪽.

92) 슬라보예 지젝, 「우울증과 행동」, 222쪽.

차지한 대상 뒤에 있는 거라곤 텅 빈 공허뿐이지만, 하나의 일관성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그 대상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대상은 ‘숭고한 대상’이다. 그리고 이 숭고한 대상을 실체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하게 편향된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대상은 ‘왜상적 대상’이다. 이렇게 ‘편향된 시각’에서만 ‘실체’가 될 수 있는 왜상적 이미지는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정확히 짚어준다.⁹³⁾ 그렇다면 ‘리얼리즘론’이 그 자신을 지탱하고 구축하기 위해 공허에 넣어둔 ‘리얼리티’는, ‘리얼리즘론’의 시각으로는 실체일 것이고 나머지 방향의 시각에서는 공허인, ‘왜상적 대상’이자 ‘숭고한 대상’일 것이다.

이제 ‘리얼리즘론’의 ‘숭고한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백낙청의 실제 비평을 다시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진정한 리얼리즘’ 문학이 실체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당대 대부분의 작품들에 대해 ‘진정한 리얼리즘’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할 뿐, ‘진정한 리얼리즘’ 문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그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찾아내지도 못한다. 황석영, 고은 정도가 진정한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그의 상찬을 받아왔지만, 오랜 세월 문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평론가치고 지나치게 경직되고 협소한 스펙트럼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의 비평은 형식에 대한 분석 대신, 소재와 줄거리에 초점을 맞춰 보다 치열한 ‘작가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다.

가령 백낙청은 이문구에 대해 “작가의 인식이 작품 속에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가 때로는 구성의 허술함을 낳고 때로는 문체에까지 이상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평한다. 또한 그의 독특한 문체에 대해서도 “해학적인 처리로 인해 어딘가 문제의 핵심이 흐려진 느낌을 금하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하며, “농민문학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판한다.⁹⁴⁾ 박완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박완서의 작품 세계는 1970년대 한국의 현실을 사는 한 정직한 소시민의 자기 성찰과, 그 소시민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아직은 다분히 산발적인 노력의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구성의 산만함이나 처리의 안일함도 그러한 근본적 애매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⁹⁵⁾

백낙청은 두 작가에 대해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문구의 ‘어딘가 문제의 핵심이 흐려진 느낌’이나 박완서의 ‘근본적 애매

93)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29~230쪽 참조.

94)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296쪽.

95) 같은 책, 300쪽.

성'일 것이다. 비평의 근거라고 하기엔 지극히 관념적이고 모호하다. '진정한 것'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백낙청의 '치열한 평론가 의식'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에, 그것은 '느꼈으면 느낀 것이고 못 느꼈으면 못 느낀 것이지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평가들을 그의 비평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모호하고 주관적인 언어와 사유를 통해 '진정한' 작가의식과 '진정한' 작품을 찾아 떠난 길에는, 늘 '아직' 진정한 작가의식에 미치지 못한, 여전히 진정하지 않은 작품들만 발견된다. 앞서 말했듯이 우울증적 주체가 결여를 상실로 치환하여 역설적으로 절대적인 소유를 시도하는 주체라는 점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백낙청의 끝없는 부정의 이유를 이해해줘야 할 것이다. '진정한 것'은 상실함으로써 소유할 수 있으므로 영원히 상실 상태여야 한다. 상실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단 한번도 소유해본 적이 없기에 상실한 적도 없는 대상을 이러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소유하는 우울자에게 진정한 소유의 대상은 바로 상실감 그 자체"⁹⁶⁾이며,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대상을 상실하는 최초의 몸짓 자체에 대한 집착"⁹⁷⁾인 것이다.

그렇다면 '리얼리즘'의 숭고한 대상은 '작가의식'이나 '전망'이나 '진정한 문학'을 넘어선, '상실감'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상실감'이라는 감정은 불안감이나 모멸감처럼 혈족적 관계에 있는 다른 감정들에 비해 훨씬 견딜만한 것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불안은 상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점은, 이 숭고한 '상실감'이 거대한 '진정한 것'의 차원에서는 늘 유지되지만, 개별 작품 단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불안감 대신 선택한 상실감에도 다행히 보상 기전은 있다. 그리고 그 보상 기전에 의해 다시 솟아오르는 불안감은 제어된다. 시들어버리는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 집요한 묘사인 자연주의 계열의 소설에 비해, '리얼리즘' 소설들은 '전망'을 제시한다. 소설 속에 나아갈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선취한 전망이 있으며, 그 전망을 담지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거대한 상실감과 남아있는 불안감에 대해 보상과 안도감을 준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고도'를 영원히 기다려야 하는 모더니즘 작품과 달리, "사실주의 계열의 고전적 이야기는 대체로 '보수적' 형태를 띠는데 이런 이야기는 '존재한다'는 편안한 신호로 부재에 대한 우리의 불안을 무마"⁹⁸⁾시킨다. 끝내 '고도'가 나타나지 않

96)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마음의 사회학』, 236쪽.

97) 슬라보예 지젝, 『우울증과 행동』, 223쪽.

98) 테리 이글턴, 『문학이론입문』, 228~229쪽.

는 상황 속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과 상실감은, ‘고도’를 기다리던 우리의 믿음에 균열을 내며 퍼져나간다. 그러나 ‘전망’을 보여주는 ‘리얼리즘’ 소설은 바로 수거할 수 있는 작은 보상을 던지며,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임을 예비한다. 그렇다면 ‘리얼리즘론’이 사실주의와의 혼동을 염려하면서도, 사실주의 기율을 고집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리얼리즘론’의 방법론

‘리얼리즘론’의 사실주의적 방법론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와 그 현실 너머로 도래할 ‘진정한 현실’을 나누는 이원론적 세계 인식은 존재하고 있다. 물론 ‘리얼리즘론’에서 표층과 심층은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있거나, 심층이 일방적인 ‘배후’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질서한 표층보다 심층의 근본적인 총체성이 더 강력한 가능성과 힘을 가진, 심층 우위의 사고방식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심층을 상징하는 문학론은 소설 속에 등장하지 않는 거대한 ‘리얼리티’를 상징하여 소설 전체를 지탱한다. 세계를 둘러싼 모순과 그 모순을 극복할 전망이라는 ‘심층’은 이미 소설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정작 소설에 주어진 것은 그 모순과 전망의 총체적 일부로서의 ‘전형’일 뿐이다. 다시 말해 총체적 모순이라는 부정적 요소와 전망이라는 긍정적 요소는 소설 전체를 ‘균형’있게 나누며 장악하지만, 결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심층의 요소들인 것이다.

이렇게 심층을 상징하는 ‘리얼리즘’ 소설은, 소설을 지탱하는 ‘리얼리티’가 소설 내에는 존재하지 않되 실체로서는 존재한다는 역설을 발생시킨다.⁹⁹⁾ 이 역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러나 있는 세계 너머를 봐야한다는, 이원론적 세계 인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역설을 내면화한 서술 주체는 사실주의적 기법을 통해, 드러난 현실을 그려내고 동시에 ‘진정한 현실’을 암시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리얼리즘’ 소설

99) 소설을 지탱하는 ‘리얼리티’가 소설 내에는 존재하지 않되 실체로서는 존재한다는 역설을 지닌 문학 장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추리 소설이다. 추리 소설에서 ‘사건’은 부재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이 역설은 탐정으로 하여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드러나 있는 세계 너머’를 보게 만드는 ‘이원론적 세계 인식’과 무관할 수 없다. 필자는 추리 소설 역시 ‘진정한 것’에 대한 열망 하에서 구축되는 장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누적되기 시작한 19세기의 추리 소설과 70년대 ‘리얼리즘론’의 ‘정치적 무의식’과 ‘우울증적 전략’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른 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은 매개로서의 언어를 주목하지 않는다. 세계의 ‘리얼리티’는 마땅히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을 언어는 투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리얼리즘’ 소설의 임무는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마치 ‘리얼리즘론’이 세계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진정한 현실’로 나눠 표층과 심층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는 것처럼, ‘리얼리즘’ 소설 역시 ‘소설에 드러나는 현실’과 지향해야 할 ‘진정한 현실’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그 상호작용은 ‘진정한 현실’을 담지하는 ‘각성’된 인물과 그 인물이 포함된 ‘전형’의 묘사를 통해 일어난다. 그렇게 지금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현실도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리얼리즘론’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실주의의 정도’ 역시 짐작해볼 수 있다. ‘리얼리즘론’은 ‘부재하는 현존’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에, 이 ‘현존’의 측면을 지나치게 선언해버리거나 혹은 ‘부재’의 측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면, 진정한 ‘리얼리즘’에 미치지 못하는 균형 잡히지 못한 작품이 된다. ‘진정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리얼리즘론’이 항상 강조하는 ‘균형’이 성립한다. 그 균형을 위해, 사실주의라는 기법으로 수렴될 수 없는 ‘정신’이 필요하다.

백낙청은 “참다운 리얼리즘의 경우 현실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비유컨대 역사의 싸움에 임한 동지와 동지 사이에 수행되는 일종의 전황점검과 같은 성격을 띤다. 그것은 만인의 동포적 결합을 앞당기는 데 필요불가결한 작업일 뿐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 동지와 동지 간의 사랑을 전달하고 굳히는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이어서, 현재 우리가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정밀한 현실 묘사는 환멸·체념·회의 및 자의식을 조장할 뿐 인류의 진보를 긍정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얼리즘 전통 내부에서 부르주아 문학의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처럼 순환 논리적이고 당위적인 결의를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심층에 대한 치열한 인식 없이 이뤄지는 사실주의적이기만 한 묘사는, 단지 ‘부르주아 문학’일 뿐 ‘리얼리즘’ 문학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¹⁰⁰⁾

다시 말해 ‘리얼리즘론’이 말하는 문학적 이상은, 정밀한 묘사에 급급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드러내는 자연주의적 소설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현실’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묘사인 것이다. 물론 여기서 방점은 지나치게 ‘환멸·체념·회의’를 가져오지 않는 한, 사실주의 기율을 유지할 것에 찍혀 있다. “사실주의적

100) 백낙청,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125~126쪽.

기욤의 수용문제가 곧 서구의 과학정신과의 만남”이고 사실주의적이지 않는 기법은 “과학시대의 영원한 낙오자로 머물 위험도 적지 않”다고 우려하는 모습이 이를 보여준다.¹⁰¹⁾ 이것은 아마도 사실주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사실주의적 방법이라면 그 무언가를 잘 담아낼 수 있다고 믿는, 언어 자체에 대한 무한히 높은 신뢰가 있는 것이다. 그는 치열한 작가정신만 있다면, 언어가 세계를 떼개 없이 담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해 “반자연주의적 미덕은 (중략) 이 연작 소설이 갖는 중대한 결함들—가령 노동현실을 다루었는데도 살아있는 노동자의 육성이 작중의 대화에서 조차 안 들린다는가 하는 점—과 직결”된다고 비판한다. 그런가 하면 “이청준의 많은 작품들이나 윤홍길의 일부 작품에서 사실주의적 논리가 무시되었을 때는 『난쟁이...』에서만한 듯가도 못 찾고 있으며” 박경리의 『토지』의 경우 2부가 1부에 비해 “민족문학으로서 성과가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건 전개와 배경묘사에 있어 자연주의적 박진감이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짐짓, 지나치게 사실주의적 묘사에만 치우쳐 흡족하지 못한 작품들도 있을 것이라 전제하면서도, “보다 많은 경우에 자연주의의 기욤을 희생하는 것이 곧 작품 자체의 내적 논리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한다. 정밀한 묘사를 하다가 지금의 현실을 승인하게 될 지도 모르는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그는 결코 사실주의 기욤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실주의 기욤에 충실하다면 ‘살아있는 노동자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¹⁰²⁾

그렇다면 진정한 ‘리얼리즘’ 문학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첫째, ‘진정한 현실’을 보는 눈과, 둘째, ‘진정한 현실’을 그려낼 사실주의적 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리얼리즘론’이 사실주의 기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역시 알 수 있다. 그것은 전자의 목적을 후자의 기법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주의라는 형식은 그 특징 상 ‘서술’하는 서술자의 위치를 삭제하고, 서술된 것을 ‘진정한 현실’이라고 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식이다. 백낙청의 말대로 사실주의는 마치 ‘과학정신’처럼 느껴진다. 설사 ‘과학’은 아니어도 ‘과학정신’으로 보일 수는 있다. 그가 사실주의와 ‘리얼리즘’의 차이로 언급했던 그 ‘정신’은, 실은 이미 사실주의 안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사실주의는 결여인 대상을 실체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양식이다. 그래서 ‘리얼리즘론’은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전형’과 ‘전망’을 그려나가며 ‘진정한 것’으로 향하

101) 백낙청, 「민족문학의 새로운 고비를 맞아」, 87쪽.

102) 같은 책, 88~89쪽.

는 길의 상실감과 불안감을 조정해나갈 수 있었다.

4. ‘진정한 것’의 허무주의를 넘어서

끝없이 추구해야할 이념형으로 ‘진정한 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제시하고자 사실주의 기법을 선택했던 ‘리얼리즘’ 소설은, 당대의 모순을 드러내 비판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지향을 보여주며 ‘진정한 것’에 대한 열망에 그런대로 보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만큼 ‘리얼리즘론’은 한국 사회에 철학적·사회적·문화적 지평의 통합적인 성찰과 성과를 가져왔다. 사실, 절대적 소유를 위한 부정의 몸짓은 그 우울증적 주체가 무엇을 소유하려 하는지에 따라 일견 진보적이고 실천적으로 보일 수 있다. 백낙청이 ‘리얼리즘’ 소설에 담길 요구했던 ‘시민 의식’이나 ‘민중의 각성’, ‘민족의 현실’ 등은 모두 당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담론적 지향점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울증적 주체의 야망을 가졌지만 우울해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우울증적 주체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굳건해 보이던 ‘숭고한 대상’이 외부적 혹은 내부적 요인으로 붕괴하기 시작하면, 절대적 소유를 향한 부정은 허무주의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부재하는 현존’을 향한 여행에서 귀환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우울증적 주체들은 ‘부재하는 현존’에서 ‘현존하는 부재’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것’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지고 그 자리에 냉소가 차오르는 시대, 그 시대는 ‘진정한 것’에 대한 열망의 필연적 미래일 수 있다. 허무와 냉소는 세계를 기획하고 소유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 목표를 상실한 후 빠지기 쉬운 하나의 덧인 셈이다.

실제로 ‘리얼리즘론’을 비롯한 70~80년대 사유는 90년대에 들어서,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붕괴에 맞닥뜨렸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주의라는 ‘체제’의 실패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몰락, 즉 “사회주의적 미래가 ‘바깥’이 아니라는 불길한 자각”과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몰락”이었다. 이제 세계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바깥’을 잃어버렸다.¹⁰³⁾ 남은 것은 오직 ‘현재’와 ‘이곳’ 뿐이다. 역사적 전망과 철학으로 무장했던 ‘리얼리즘론’이 70~80년대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양상”을 잃어버리고, 90년대 이후 “소극적이고 암중모색의 성격”을 띠게 된 것에는 이렇듯 ‘바깥의 붕괴’가

103) 차승기, 『멜랑콜리와 타자성』, 『비상시의 문/법』, 그린비, 2016, 344쪽.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¹⁰⁴⁾

체제로서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가지고 있었던 열망, 그것은 자신이 사는 세계에 ‘바깥’이 존재하고 그 바깥에 무언가 더 ‘진정한 것’이 있다고 믿는, ‘너머’에 대한 인식이었다. 실은 ‘너머’ 자체가 결여 자리에 세워진 ‘진정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너머가 붕괴한 후, 사람들은 짧은 순간이나마 결여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 드러나 버린 텅 빈 공허 앞에서, ‘리얼리즘론’은 여전한 ‘분단모순’과 ‘새로운 전망’을 강조하며 ‘목격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않기를 요청했다. “현단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를 진정한 인간의 해방으로 이룩해나갈 전망”¹⁰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리얼리즘론’의 과녁은, 여전히 ‘근본적 모순’과 ‘전망’이라는 ‘진정함’을 향해 정확히 조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모색은, “민족문학론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¹⁰⁶⁾라는 한 ‘리얼리스트’의 물음처럼, 비판을 감춘 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일종의 다짐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등장한 작가와 독자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비판적 자문자답의 방향을 정반대 쪽으로 돌려버린다. 그들은 대안과 외부를 향해 전열을 다듬기보다 차라리 ‘상실의 시대’를 노래하고 그것을 내면화한 채 자기 안으로 깊숙이 침잠해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실의 시대는 ‘리얼리스트’의 다짐과 일견 정반대의 사유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상실을 안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 허무와 무기력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여전히 ‘리얼리즘의 갱신’이 중요한 게 아니겠냐고 항변하는 ‘리얼리즘론’의 반문과 동일한 지평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¹⁰⁷⁾

‘진정한 것’을 찾던 ‘상실감’이 향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수렴된다. 첫째, ‘기존의 진정한 것’에 대한 빠른 애도 후 ‘새로운 진정한 것’을 중심으로 다시 응집하는 것,

104) 김명인, 「자명성의 감옥」, 『자명한 것들과의 결별』, 창비, 2005, 244쪽.

105) 윤지관, 「민족문학에 떠도는 모더니즘의 유령」, 『창작과 비평』 1997년 가을호, 271쪽.

106) 같은 책, 272쪽.

107)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 열광한 독자와 90년대 새롭게 등장한 작가들은 이 ‘상실의 시대’를 여러 방식으로 탐구한다. 이러한 소설들에 담긴 ‘비루함’에 대해, 황종연은 정치적·이념적으로 빈곤한 의식을 가진 90년대 작가들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저항의 전략이 ‘비루하게 하기’라고 짚어낸다. 또 상실의 내면화와 내향성의 경향에 대해서는, 재현적 기능과 전체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개인 주체의 의식과 경험’에 집중하는 반성적 사유라 평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90년대를 지배하는 정서는 여전히 ‘진정성의 추구’라는 것이다.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제6권 제4호, 1999, 1~15쪽 참조; 「개인 주체로의 방법적 귀환」, 『문학과 사회』 제6권 제4호, 1993, 1305~1328쪽 참조. 김형중 역시 90년대 이후 소설의 특징으로 ‘아이러니’나 ‘편집증’의 급증을 꼽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가리키는 곳은 ‘진정성의 상실’이 아니라 새롭게 고안된 진정성이라고 주장한다. 「진정할 수 없는 시대, 소설의 진정성」, 『변장한 유토피아』, 2006, 60~76쪽 참조.

둘째, ‘진정한 것’에 대한 영원한 상실을 인정한 후 좌절을 내면화하는 우울과 허무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다. 둘은 달라 보이지만, 모두 결여를 인정하지 않고 결여를 상실로 바꿔 점유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전자는 대상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다른 대상으로 눈길을 돌려 ‘상실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후자는 대상의 영원한 상실을 쿨하게 인정한 후 상실의 몸짓과 표정만 남겨 세련된 ‘상실의 추억’을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자의 이데올로기적 허무주의와 후자의 상업적 허무주의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후자가 상실을 내면화하여 ‘내면적 진정성’과 ‘상실의 미학화’ 사이를 오락가락할 때, 전자 역시 상실의 자리에 놓을 ‘숭고한 대상’들을 바꿔가며 이데올로기적 불능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리얼리즘론’은 담론의 영역에서 ‘시민문학론’, ‘민족문학론’, ‘제 3세계 문학론’, ‘민중문학론’ 등 거대한 ‘수평적 계열체’를 건설하면서도 창작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형은 바뀌어도 ‘진정한 것’을 찾기 위해 ‘진정하지 않은 것’들만 발견하는 우울증적 전략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진보적 문학 담론을 형성했던 ‘리얼리즘론’에는 애초 허무가 섞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리얼리즘론’을 지탱하는 우울증적 주체는, ‘진정한 것’이라는 구원의 결여를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구원을 열망하는 주체이다. 그는 구원의 결여 자리에 그것의 ‘상실’을 놓음으로써 구원의 ‘잠정적 불가능성’을 취했다. 결여의 ‘불안’을 견딜 수 없어 ‘불가능’을 택한 것이다. 그 ‘불가능’이 언젠가 성공할 ‘잠정적 불가능’이 아닌 ‘영원한 불가능’ 혹은 ‘결여’임을 알 때, 우울증적 주체는 신념의 가면으로 가리고 있었던 불안한 맨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 버린 불능과 불안의 맨얼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제스처로 허무와 냉소를 가져온다. 현재 우리 시대의 표정은 이런 것이다.

만약 우울증적 주체가 ‘상실’로 치환된 ‘결여’의 빈 공간에 더 이상 상실을 대신할 대상 두기를 포기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울증의 증세는 더 심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우울증의 메커니즘을 “사실상 욕망의 후퇴가 근원적인 요인”이라고 말한 것처럼,¹⁰⁸⁾ 실은 우울증적 주체가 보여주었던 ‘진정한 것’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이미 욕망이 후퇴 중이라는 징후였을 지도 모른다. 이제 징후는 더 이상 징후로서 존재하지 않고 증상으로 만연해있다. 우리 사회에는 백낙청처럼 ‘진정한 것’을 찾다 실패하는 우울증적 주체보다, ‘진정한 것은 없음’을 ‘진정한 것’으로 만들고 우울한 욕망을 냉소로 식히는 우울증적 주체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108) 조르조 아감벤, 『행간』, 58쪽.

이렇게 진화된 우울증적 주체들은 더 이상 상실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놓아두진 않지만, 결여를 결여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여전히 ‘결여’를 향한 ‘상실’의 시선을 유지한 채 ‘진정한 현실은 허무’라고 중얼거리고 있다. 이렇게 ‘진정한 것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진정한 것’을 바라보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이번엔 ‘진정한 것’의 자리에 ‘무(無)’를 올려놓은 것뿐이다. ‘진정한 것’이라는 세계의 빈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빈터를 중심으로 짜인 현실의 구조물은 여전히 탄탄하다.

돌이켜 보면, 허무주의란 ‘진정한 것’에 대한 열망과 그로 인한 ‘우울증의 야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무를 ‘진정한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진정한 것’을 향한 열망이 끝난 지금, 우리 사회는 표층 너머에 존재하는 심층의 모순 대신, 허무와 냉소를 향해 싸워야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리얼리즘론’의 한계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리얼리즘론’은 ‘진정한 것’을 찾기 위해 신념과 열망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위해 세계를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진정한 것’을 향한 열망은 실천과 투쟁을 가져오기도 하고, 동시에 실천과 투쟁의 불능을 가져오기도 한다. 우울증적 주체의 세계에서 ‘지금 가능한 것’은 크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아직 이것을 넘어서는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 세기의 열정을 정리하고, 다음 세기의 사유를 짚어보려는 바디우의 시도도 이 지점을 짚어내고 있다. 그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점철되었던 세기가 “거대한 범 죄를 유발하는 계기”였다고 시인한다. 그리고 그 범 죄는 “계획의 질서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익이라는 자동성의 질서로 옮겨갈 것”이고, 그렇게 세기의 범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¹⁰⁹⁾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 ‘자동성의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대의 민주주의가 지구 전체에 부과하기를 희망하는”, 인간을 그저 육체를 지닌 “가없는 동물”로 바라보는 “동물적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진리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 시대 ‘냉소’와 싸우기 위해, 다시 실재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선포한다. 여기 시대의 딜레마가 있다.

이런 딜레마는 최근 ‘미래파’로 호명된 일군의 시인들이 ‘미래파’라는 이름 속에 담긴 선언적 가치를 거부하며 ‘미래파’ 명명을 부정했던 비평적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홍중은 ‘미래파’가 된 시인들과 그들을 호명한 비평가들을 비교하며 “실재에의 무관심이 시의 태도라면 ‘실재의 열정’을 끊임없이 찾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비

109) 알랭 바디우, 『세기』, 27쪽.

평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실재의 열정이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냉소와 허무에 빠지지 않고,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진정한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실재 그 자체를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의 열정’을 열망하는 것”이라는 말이다.¹¹⁰⁾

어쩌면 딜레마란 지식인들에게만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식인은 “대중처럼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스스로를 방기하지 못하고, 나름의 정신적 지표를 설정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후하고 고전적”인 태도를 갖는다.¹¹¹⁾ 백낙청의 시대에 지식인의 자기구성적 발화는 ‘신문정부’의 형태를 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정부를 중심으로 대중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실제로 대중에게 ‘계몽’은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지식인의 곤경은 미래파로 불린 시인들과 그들을 호명한 비평가들의 비대칭성처럼, 더 이상 대중에게 지식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또한 지식인 스스로도 ‘진정한 것’의 부재는 알지만 그에 대한 ‘열망’을 버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유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쩌면 ‘리얼리즘론’이 지녔던 신념과 열망을 폐기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인지도 모른다. 여전히 진정한 것에 대한 ‘열망’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것의 유용성이나 가능성이 얼마 만큼인지, 그 열망이 다시 ‘진정한 것’으로의 퇴행이나 ‘열망’의 가벼운 제스처로 수렴되는 것은 아닌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열망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할 곳이 심층에 존재하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드러나 있는 표층들의 사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것’을 찾는 끝없는 여행 대신 지금 이 곳에 굳건히 서서 끝없이 ‘질문하기’를 수행하는 새로운 가능성일지도 모른다.

‘상실’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돌아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¹¹²⁾ 결여를 인정하고 답을 전제하지 않는 질문들만이, 허무로 미끄러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인정하자면, 아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될 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답 찾기’가 아닌 ‘다른 질문하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세계의 모순마저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질문하기’마저 폐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필요한 것은, 결여가 상실이라 아니라 원래 없다는 것을 직시하는 일, 그래서 더 절망하되 그 절망 속에서 끝없이 다른 질문을 던지는

110) 김홍중, 「실재에의 열정에 대한 열정」, 『마음의 사회학』, 419~420쪽.

111) 같은 책, 422쪽.

112) 실제로 ‘리얼리즘론’의 위상이 높았던 70년대, 이미 많은 소설들은 ‘끝없는 여행자 의식’ 혹은 허무주의 사이를 오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70년대 소설의 우울증적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글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일이다. ‘진정함’에 대한 열망에 붙잡혀 하늘로 올라가려다 허무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진정함’에 대한 열망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물로 만든 선부른 희망과 대안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보다 두터운 절망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이 때 그 길에 가지고 갈 ‘열망’은 우리를 지탱해주진 못할지라도,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리얼리즘론’이 가야할 길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생각한다. 그 길은, ‘진정함’을 찾아 떠나는 기나긴 여행길이 아닌, 끝없이 다른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열망’을 가진 채 머티고 서있어야 할 진창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리얼리즘론’에 섞인 허무의 냄새를 털어내고, 애초 ‘리얼리즘론’이 담고자 했던 ‘리얼리티’에 대한 감각과 열망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결여를 상실로 치환하는 우울증적 전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제 4 장 결론

이 글은 60년대 ‘시민문학론’과 70~80년대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 백낙청의 ‘리얼리즘론’을 비판적으로 재고하기 위해 쓰여 졌다. 특히 ‘리얼리즘론’에 담긴 제한 없는 개념들과 창작적 빈곤에 초점을 맞춰, 백낙청이 비판하고 극복하려 했던 단일한 근대성이 실은 그의 사유 전반을 한정짓고 곤경에 빠지게 했음을 밝히고자했다.

백낙청의 ‘리얼리즘론’은 철학적·사회적·문화적 층위에서 매끈하게 완결된 근대적 주체의 단일한 모더니티를 보여준다. 그렇게 ‘각성된 주체’가 각성되지 않은 ‘민중/민족’을 향해 가졌던 부채감과 책임감, 그리고 비역사적인 개념으로서 ‘시민/민중/민족’을 호명하며 서구적 근대화를 내면화해가는 과정은 그의 단선적·진보적 역사관과 당위론적 문학관을 통해 발화된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국내외의 사회적·문화적 변화는 이러한 백낙청과 『창비』 진영의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빠르게 위축시켰고, 그의 ‘리얼리즘론’ 역시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서 ‘창비다움’을 잃어갔다.

그러나 이런 ‘리얼리즘론’의 곤경은 ‘시민문학론’ 시절부터 줄곧 예비되어 온 것이었다. ‘리얼리즘론’은 과거로부터 또 미래로부터 ‘상실’ 상태인 ‘진정한 것’을 찾기 위해, ‘진정하지 않은 것’만 지목하는 사유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진정한 것’에 대한 사유는 애초 서구적·단선적 역사관과 계몽적·규범적 문학관이 비학문적 개념을 만나 만들어진 당위적 문학론이었기 때문에, 눈앞에 존재하는 대타자로서의 독재 권력이 무너지고 정교한 문학이론들이 도입되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백낙청과 유사한 사유는 의외로 영국의 보수적 지식인인 리비스(F.R. Leavis)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리비스의 문학론이 개인의 고유한 삶이나 본질에 집중하는 초월적 이데올로기로서 그 자신의 권위만을 보장했듯이, 백낙청의 ‘진정함’과 ‘건강함’에 대한 사유도 합리적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직관적 권위로 귀결되기 쉬웠다.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등장한 리비스의 자유주의적 휴머니즘과, 서구의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면서도 보편성을 향한 열망을 가진 백낙청의 사유는 유사한 정치적 무의식을 갖고 유사한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를 단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기존 체제에 대항하여 ‘진정성’을 추구하는 근대적 주체의 열망이기도 했고, 20세기의 ‘실재’에 대한 열정’이기도 했으며,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모더니티에 대한 경험 속에서 ‘녹아내리지 않고 존재하는 그 무엇’을 찾고 싶은 열망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여’를

‘상실’로 치환해 그 결여를 소유하려는 우울증적 동일시이기도 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세계 속에서 녹지 않는 ‘진정한 것’을 찾아내어 본질적인 세계를 소유하고픈 상상력은 ‘우울증적 주체’의 전략이며, ‘리얼리즘론’의 야망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우울증적 주체의 전략이 항상 허무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진정한 것’을 찾다 실패한 ‘상실감’이 빠른 애도 후 새로운 ‘진정한 것’으로 향하기도 하지만, 결국 상실과 좌절을 내면화하는 우울과 허무의 자세로 바뀌기도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진보적 문학 담론을 형성했던 ‘리얼리즘론’에는 애초 허무가 섞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것’을 찾기 위해 세계를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리얼리즘론’의 우울증적 전략은, ‘리얼리즘론’의 실천과 투쟁을 가져옴과 동시에 그것의 불능과 창작적 빈곤 역시 가지고 온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주된 실천은 ‘진정한 것’ 대신, 허무와 냉소를 향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것’에 대한 열망인 ‘리얼리즘론’의 변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리얼리즘론’과 우리 시대가 이 한계에서 다시 가능성을 노정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결여를 상실로 치환하는 우울증적 전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진정한 것을 향한 열망에서 ‘진정한 것’을 뺀 ‘열망’ 자체의 생명력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을 지라도, 또 다른 냉소 대신 열망을 가져야 할 필요는 충분하다. 이제 그 열망이 어디로 향하는 지에 따라 ‘리얼리즘론’과 우리 시대 사유의 현재성이 달려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Ⅰ』, 창비, (1978) 2011.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창비, (1985) 1995.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Ⅲ』, 창비, 1990.

2. 논문 자료

- 강동호, 「리얼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장편소설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문학과 사회』 2013년 가을호.
 강동호, 「민족문학론의 인식 구조 -1960~70년대 백낙청의 김수영론에 대한 비판적 독해-」, 『인문학연구』 제51집, 2016.
 강정구, 「1970~90년대 민족문학론의 근대성 비판」, 『국제어문』 38, 2006.
 김나현, 「『창작과 비평』의 담론 통합 전략 -1970년대 아동문학론 수용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50, 2013.
 권보드래, 「민족문학과 한국문학」, 『민족문학사연구』 44, 2010.
 김미영, 「백낙청의 리얼리즘론과 로렌스, 하이데거, 불교의 관련성」, 『한국현대문학연구』 44, 2014.
 김수림, 「4·19혁명의 유산과 궁핍한 시대의 리얼리즘」, 『상허학보』 35집, 2012.
 김영찬, 「방영웅의 『분례기』와 백낙청의 리얼리즘」, 『겨레어문학』 제56집, 2016.
 김형중, 「응답하라, 1983 -박노해, 황지우, 백낙청의 시대」, 『문학과사회 하이픈』, 2017년 봄호.
 류준필, 「백낙청의 리얼리즘론의 문제성과 현재성」, 『창작과 비평』 2010년 가을호.
 박연희, 「제3세계 문학의 수용과 전유 -『창작과 비평』의 미국 흑인문학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7집, 2016.

- 박현호,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 『상허학보』 17권, 2006.
- 손유경,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을 통해 본 1970년대식 진보의 한 양상」, 『한국학연구』 제35집, 2014.
- 손유경, 「현장과 육체 -『창작과 비평』의 민중지향성 분석」, 『현대문학의 연구』 56, 2015.
- 손유경, 「후진국에서 문학하기 -세대교체기의 『문학과 지성』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4.
- 윤지관, 「민족문학에 떠도는 모더니즘의 유령」, 『창작과 비평』 1997년 가을호.
- 이현석, 「4·19혁명과 60년대 말 문학담론에 나타난 비-정치적 감각과 논리:소시민 논쟁과 리얼리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5, 2011.
- 조연정, 「주변주 문학의 (불)가능성 혹은 문학 대중화의 한계 -백낙청의 ‘시민/민족/민중문학론’ 재고-」, 『인문학연구』 제51집, 2016.
- 허병식, 「한국문학사 서술의 정치적 무의식」,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집, 2010.
- 황종연,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제6권 제4호, 1999.
- 황종연, 「개인 주체로의 방법적 귀환」, 『문학과 사회』 제6권 제4호, 1993.

3. 단행본 자료

- 김명인, 『자명한 것들과의 결별』, 창비, 2005.
- 김철·신형기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5.
- 김형중, 『변장한 유토피아』,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 이광래, 『미셀 푸코』, 민음사, 1989.
- 조영일, 『가라타니 고진과 한국문학』, 도서출판b, 2009.
-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 그린비, 2016.
- 아감벤, G., 윤병연 역, 『행간』, 자음과 모음, 2015.
- 바디우, A., 박정태 역, 『세기』, 이학사, 2014.
- 버만, M., 윤호병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2011.

- 부르디외, P.,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 단토, A., 이성훈 역, 『예술의 종말 이후의 예술』, 미술문화, 2012.
- 이글턴, T.,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비, 2015.
- 프로이트, S., 윤희기 외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2.
- 리비스, F. R., 김영희 역, 『영국소설의 위대한 전통』, 2007.
- 지젝, S., 한보희 역,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새물결, 2008.